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이 재 섭

2016년 8월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지도교수 양 진 건

이 재 섭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이재섭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여 성 

위 원 김 영 희 

위 원 梁 鐵 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6년 8월

A study of Developing 『Choi, Jeong-suk』 Storytelling Contents

Lee, Jae-Sub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Storytelling).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Park, So-song

Kim, Maeng-Ha

Yang, Jigeon

Dat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i
Abstract	v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4
3. 역사 인물 스토리텔링의 사례	6
II. 『최정숙』 자료 분석	9
1. 회고담	10
2. 평전	14
3. 최정숙 관련 행사	19
4. 기타	23
III. 스토리텔링을 통한 『최정숙』 콘텐츠 전략	28
1. 역사 인물 『최정숙』 스토리텔링	28
2. 최정숙의 서사	32
IV.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42
1. 독립운동가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42
2. 다큐멘터리 『그림 : 1901 · 2632』	45
V. 결론	57
참고문헌	60
부록	63

표 목 차

<표 1> 최정숙 관련 자료 목록	27
<표 2> 채트먼의 서사형식 구조	29
<표 3> 역사 이야기의 서사형식 구조	30
<표 4>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서사형식 구조	31
<표 5>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서사형식 구조	31
<표 6>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 서사형식 구조	32
<표 7> 『그림 : 1901 · 2632』 시대별 서사	37
<표 8> 다큐멘터리 『그림 : 1901 · 2632』 시놉시스	46
<표 9> 다큐멘터리 『그림 : 1901 · 2632』 트리트먼트	50

【국문초록】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이 재 섭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에 관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것으로, 독립운동가로서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1919년 3월 1일 행적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최정숙 선생은 1902년 제주읍 삼도리에서 태어나 1909년에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유학을 떠났다.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라를 잃은 민족의 한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식을 키웠다. 경성관립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진학한 선생은 일본 교사들의 조선인 차별 교육에 맞서기도 하면서 ‘나라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는 게 아깝지 않다’라며 독립을 향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불운의 시절, 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였으며 3월 1일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최정숙 선생은 단순히 3월 1일, 독립만세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민족의식을 품고 고민하였으며, 그 심화의 단계를 거치

며 위기의 순간마다 민족혼을 표현하고 실천하였고 79 소녀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도모하다가 3월 1일에 이르자 서울의 중심부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선생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독립을 향한 열망을 숨기지 않는다. 일본인 검사와의 심문을 통해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길 바라는 독립을 원한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18세의 앳된 나이였음에도 올곧은 정신과 태도로 일본의 총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선생의 의기(義氣)는 5·16 민족상을 받은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자 교육자로서의 업적과 순례자이자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의 삶에 가려져 지금껏 제주 지역의 사람들에게조차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선생이 걸어온 삶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언급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다. 독립운동가 최정숙 스토리텔링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최정숙 선생의 일대기적 서사구조를 분석하고자 선생의 평전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 살펴본 선생의 자료는 평전, 유품 전시회, 학술세미나, 시, 수필, 논문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교육자이자 종교인 최정숙의 진면목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칠십 평생의 삶에서 교육자이자 종교인으로서 이룩한 업적은 위대하다. 그렇지만 선생이 살았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시절 삶의 여정이야말로 이후 선생의 삶을 짐작케 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깨닫고 되돌아볼 만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3장에서 최정숙이라는 인물의 일대기적 서사구조를 살펴보고,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서사와 맥이 닿는 이야기를 뽑아 재구성하였다. 4장에서는 서사의 재구성을 통해 최정숙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를 제시하였다.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모색하고 개발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가치는 최정숙의 이야기가 현재를 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가에 있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아픔의 시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을 빼앗겼던 그 시절, 잃어버린 봄을 찾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며 청춘의 시절을 살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며 얻은 지병으로 평생을 앓으면서도 남은 생애에 걸쳐 민족 교육과 의술의 나눔,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헌신한 선생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삶에 작은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A study of Developing 『Choi, Jeong-suk』 Storytelling Contents

Lee, Jae-Sub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is study is about development of storytelling contents of Choi, Jeong-suk, who was an educator as well as an independence activist. In this study, materials about Choi as an independence activist were analyzed, and a synopsis and treatment for documentary film script revolve around her behaviors on March 1st in 1919 were presented.

Choi was born in Samdo-ri, Jeju-eup in 1902, and she went to Seoul to study after graduation from Shinseong girls' school in 1909. When she studied at Jinmyeong girls' high school, she felt deep sorrow for Korea which was taken by Japan, and promoted her national consciousness. After she entered teachers college, she opposed educational discrimination of Japanese teachers against Korean and was willing to do anything for independence of Korea, even risking her life. She had not only agonized what to do as a student and but also practiced action in real life. Accordingly, she

took part in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Since Choi was young, she worried about Korea with national consciousness, expressed the national spirit, and practiced action at the moments of crisis. She also organized 79 girls' dead band and planned independence movement, and she finally joined the movement at center of Seoul on March 1st. She did not disguise her desire for independence of Korea, although she was arrested by Japanese police and was put in jail at Seodaemun Prison. In addition, she proudly revealed that she was eager for independence of Korea while being questioned by Japanese prosecutor. Although she was only 18 years old, she who had straight mind and attitude did not step back from Japanese guns and swords. Her heroism as an independence activist is not well known even to Jeju natives since it was hidden by her achievements as an educator and a Franciscan. There are a few documents about her life, but they did not engage people's at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her life, especially about as an independence activist.

This study examined her critical biographies and related materials to analyze narrative structure of her life story. Examined materials are various, such as critical biographies, exhibition of relics, academic seminar, poem, essay and research papers. Most of them, however, focused on her life as an educator and a Catholic. Her achievements as an educator and Catholic in her 70 years life are great. However, journey of her life in historical maelstrom indeed has universal value which is worth to realize and look back. In chapter 3, it was examined narrative structure of life story of Choi and reconstituted the story as an independence activist. In chapter 4, it was presented a synopsis and treatment for documentary film script based on reconstituted story. When the documentary content

was developed, the most important value was that Choi's documentary can arouse public's sympathy. The period of sorrow because of lost sovereignty, she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reclaim lost country in her youth. Although she had been sick for rest of her life after the hardship in prison, she had devoted herself to education, medical service, and social service for public. It is to be hoped that her life is well known and affect to many peopl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광복절 즈음,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70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행사들이 전국에서 펼쳐졌다. 제주도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展」이 제주교육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렸다. 최정숙 선생은 평생을 수도자처럼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부유할 수 있었으나 청빈의 삶을 산 인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다. 그러나 선생이 나고 자란 고향 제주에서도 선생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의미 있는 전시 기획이었지만 선생의 숭고한 뜻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이가 많지 않았기에 제주교육박물관 특별전시실은 전시 기간 내내 한산했다.

심심금고(深深禁錮)¹⁾의 시절,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제주에서, 그것도 여성 교육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우수한 지역의 여성 인력을 양성한 곳이 신성여학교였다. 제주도의 초대 여성 교육감이기도한 선생은 신성여학교 1회 입학생이자 1회 졸업생이기도 하며, 1916년 일본에 의해 폐교되었던 신성학원의 역사를 다시 잇고, 무보수로 신성여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신성학원을 이끌며 이바지한 제주교육의 산증인이다. 선생이 이룩한 업적은 그 시절의 신문과 선생이 오랜 시간 수고한 교육계와 관련한 학술 논문과 저널, 신성백년사 등에만 남아 있다. 한편 선생은 가톨릭 성도였던 선생은 평신도였음에도 수도자의 삶을 살며 지역을 위해 헌신하였고 선생의 삶을 후대에게 보여주려는 가톨릭계 일부에서는 선생이 남긴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스토리텔링은 수도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명되기 때문에 지방의 숨겨진 역사와 인물은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숨겨진 인물을 찾아 그의 삶에 깃든 숭고한

1) 여성을 비하하는 법과 제도에 얽매인 여성들의 한을 가리키는 말

뜻을 기리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설가 심훈의 작품 『상록수』의 주인공이었던 ‘채영신’의 실제 모델이었던 ‘최용신’ 스토리텔링을 들 수 있다. 안산시는 ‘최용신’의 스토리텔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설 속에 박제되어 있던 인물을 현실 속으로 끄집어내었다. 그 밖에 신라인물 김대성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주시²⁾, 운초 김부용을 지역의 역사 인물로 부각하여 스토리텔링을 도모하려는 천안시³⁾ 등 많은 지역의 인물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의 옷을 입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을 마중하고 있다.

제주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하여 내려온다. 그러나 역사 인물의 경우 김만덕을 제외하고는 지역을 넘어 알려진 인물이 많지 않다. 설문대할망, 자청비 등 신화적 인물을 제외하고는 문화콘텐츠의 대상이 된 인물은 손에 꼽힌다.

지역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최정숙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이 쌓아온 업적만큼이나 큰 굴곡과 사연들로 가득하다. 비단 조국을 잃어버린 가슴 아픈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누구보다 승승장구했던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독립운동가로 일본인에게 부정선인으로 낙인 찍혀가며 모진 풍파를 겪었다. 이는 선생이 가진 인품과 삶을 향한 열정, 고난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스스로에게는 냉철하되 어려운 이에게는 한없이 인자했으며, 고국을 향한 충절과 고향 제주를 향한 애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선생의 삶은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는 주로 평전의 형식으로 발간되었다. 제주여인의 강인함을 드러내기 위해 발간된 『제주여인상』이라는 책에 한림화 작가가 쓴 「작은 불꽃 하나로 온 누리를 밝힌 생애」라는 평전이 수록되었으며, 선생이 몸담았던 신성학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박재형 작가의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재속프란치스코회에서 모범을 보

2) 이창식, 강석근(2011), 「신라 인물 김대성의 원형과 스토리텔링 창작」, 『新羅文化』,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 하경숙(2014),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성 인물의 가치와 의미-운초 김부용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인 평신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의도로 기획 발간된 이현주 작가의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가톨릭계 평화신문에서 기획 기사로 보도된 5명의 평신도와 관련된 글들을 모아 출판한 『불꽃이 향기가 되어』에도 「교육과 의료를 일으킨 여성 선구자 최정숙」이라는 이미에 작가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출판되거나 발간된 최정숙 선생의 평전은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려는 출판의도와 100주년을 맞이하는 신성학원의 기획의도, 수도자의 삶 속에서 의롭고 명예롭게 살아간 평신도의 삶을 재조명하여 신도들의 모범을 삼으려는 가톨릭계의 의도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참된 교육자요, 신앙인이자 강인한 제주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선생이었기에 기존에 출간된 평전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정숙이라는 인물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고, 21세기를 사는 이들이 함께 공감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최정숙 선생의 삶은 스토리텔링의 가치와 의미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선생의 이야기는 제주 지역의 교육, 종교, 의료, 사회봉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룬 숭고한 업적에 비하여 지역 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제주교육청과 신성학원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최정숙 선생을 업적을 기리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계를 비롯한 신성학원, 신성총동문회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정숙 선생 관련 사업은 회고와 추모의 성격이 짙으며, 교육적이며 종교적 의미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로서 최정숙 선생의 가치를 찾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생의 삶의 이야기를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최정숙 선생을 다룬 기존의 평전과는 다른 방식과 시점으로 최정숙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의 가치에 집중하여 20세기 초,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의 독립만세를 외친 제주 소녀이자 여성 선각자로서의 삶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정숙 선생이 지나온 삶의 단면들을 이해하고, 선생의 삶의 이야기를 재창조,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최정숙이라는 과거의 인물이 그 시절 어떤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겠다. 이후 선생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와 선생이 남긴 가치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조우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개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최정숙 선생(1902-1977)이다. 최정숙은 당시 전라남도 제주읍 삼도리⁴⁾에서 태어나 8세에 새롭게 문을 연 가톨릭계 신성여학교에 입학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신성여학교에서 민족정신을 배우며 나라 잃은 설움을 깨닫게 되었고 신성여학교의 교사였던 김아나타시아 수녀와 이곤자가 수녀에게 깊은 영향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하였다.

최정숙 선생은 신성여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내고 서울 유학길에 올라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서 수학하였다. 한일합병 이후 우리말을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던 시절 선생은 민족의식을 깨우치며 학업에 힘썼으며,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1919년 3월 독립만세를 외치다 투옥되었다. 일본 검사와의 심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바른 뜻을 굽히지 않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음을 당당히 말하였다. 선생은 79소녀결사대의 주동자로 몰려 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8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가석방 되었으며 1919년 11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 후 교사로서 문맹퇴치 및 여성 교육에 앞장서며, 여수원과 명신학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제주 지역에서 교육 사업에 헌신하였다. 투옥 중에 생긴 지병인 복막협착과 일본에서 의술을 공부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강평국의 꿈을 대신 이룬다는 생각으로 38세의 늦은 나이에 의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경성여자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 성모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의 말기, 어수선한 제주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제주로 귀향을 한다.

제주에 내려온 최정숙 선생은 중앙성당 소유의 땅인 병무골에 정화의원을 개업하여 의사로서 가난한 이들의 진료에 힘썼다. 1916년 7월 폐교된 신성여학교의

4)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부활을 위해 최정숙 선생은 부지런히 움직였으며, 재개교에 큰 공을 세웠다. 재개교한 신성여자중학교에서도 무보수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신설된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장까지 겸임하면서 퇴임을 할 때까지 신성여학교를 위해 헌신하였다. 교장 정년퇴임 후 제주 초대교육감으로 선출되어 4년간 제주 지역의 보편적 교육의 확대를 위해 애썼으며,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부지사장, UN가입 제주도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제주도 중등교육회 회장,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최정숙 선생은 제주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로 76년 삶의 모든 길에서 여성 선각자로서 모범을 보이셨으나, 그 이면에는 아버지 최원순의 친일 행위가 대비되면서 친일파 아버지를 둔 독립운동가로서 배일에 가려진 이야기가 있다. 또한 제주 지역의 문맹퇴치와 여성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봉사하였고, 의사 및 사회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더 철저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는 점, 서울 유학을 가기까지의 과정부터 옥고를 통해 얻은 깊은 병을 극복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큰 업적을 이루어 선생이 걸어온 극적인 삶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2) 연구 방법

역사 인물인 「백범 김구」와 「최용신」에 대한 스토리텔링 연구를 진행한 윤유석은 자신의 글에서 “역사인물은 지역의 주요한 향토문화 자원 중 하나이다. 인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물의 삶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서사의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의 완성된 서사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창작에도 유용하다. 하지만 역사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창작 서사물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윤유석, 2010a: 302)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 사실이 역사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역사성은 사라지고 감동만 남게 되어 역사의 사실성이 훼손되거나 희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역사 인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지역의 역사인물은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표

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므로 지역의 장소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윤유석, 2010a: 302-303참조).

본 연구에서는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유형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지양하고 격동기를 산 한 인물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그리고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며 독립운동가로서 최정숙의 삶과 투철한 민족의식의 흐름을 재현하여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은 인물의 삶을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 스토리텔링에서 사용하는 다시 제시한다는 ‘의미의 재현’이라는 방법(장공남, 2012: 15)을 통해 최정숙 선생이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볼 것이다. 역사 인물 스토리텔링의 사례조사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는 동시에 최정숙 선생만이 지니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인물이 지니는 다양한 업적을 단일 스펙트럼을 통해 하나의 강렬한 색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최정숙 선생이 걸어온 삶의 여정 중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에 집중하여 선생의 역사적 삶의 기록을 기존의 서사 구조에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생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3. 역사 인물 스토리텔링의 사례연구

1) 최용신 스토리텔링의 사례

심훈의 『상록수』 주인공 채영신으로 더 유명한 최용신(1909-1935)은 함경남도 덕원(지금의 원산)이 고향으로 1931년, 지금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샘골로 들어가 샘골강습소에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1935년, 26세의 나이로 사망한 근대사 인물이다(윤유석a, 2010: 302). 1935년 1월 27일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부고 기사로 시작하여, 그해 3월 2일 조선중앙일보에 “썩은 한 개의 밀알,

브나로드의 선각자 고 최용신 양의 일생, 인테리 여성들아 여기에 한번 눈을 던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2회 연재 되었고, 3월 26일 한 잡지사 기자가 샘골을 찾아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최용신의 이야기를 취재하여 4쪽 분량의 최용신 기사가 동아일보사의 잡지 신가정 5월호에 실렸다. 그리고 소설가 심훈은 1935년 5월 초에 소설 집필을 시작해 6월 말에 『상록수』라는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원고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공모전에 당선되어 9월부터 동아일보를 통해 연재되었고, 출판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윤유석, 2014b: 113-114참조). 『상록수』의 극중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의 이야기는 안산시의 <최용신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이어져 그녀의 계몽정신과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최용신 이야기의 역사적 복원은 사실성 회복에 있다. 최용신 이야기의 감동을 역사 사실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윤유석, 2010a: 309).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평전, 사진책, 최용신 테마 거리 조성, 최용신 조형물 설치, 최용신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용신 기념관 운영과 인터넷 최용신 기념관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안산시의 주관으로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최용신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용신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은 향후 체험프로그램 및 기념품 개발, 최용신 활동지 콘텐츠화의 일환으로 도보길 개발, 샘골마을 사람들과 샘골강습소의 콘텐츠화를 위한 구술조사 및 자료제작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윤유석, 2014b: 130-133참조).

5) <http://choiyongsin.iansan.net/Main.jsp>

2)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사례

김만덕의 이야기는 제주를 대표하는 인물 스토리텔링의 사례이다. 김만덕은 18세기 조선 정조 시대에 제주의 거상으로 유통업을 개척하였으며, 상도를 실천하여 재물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연 자선가이자, 신분외 굴레에 갇혀 허우적대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개척한 대표적인 제주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성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승정원일기」, 채제공의 『번암집』 권55에 수록된 「만덕전」, 「일성록」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 희곡, 만화, 전시, TV드라마, 공연,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며,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모충사에서는 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유공자들과 함께 김만덕 기념비를 세워 기리고 있다.

2011년에 설립 계획을 세웠던 《김만덕 기념관》은 2015년 5월 개관을 하였다. 최계 최초 <나눔 문화 기념관>이라는 타이틀로 제주시 건입동에 개관되어 운영 중이다. 1층은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라는 주제의 <나눔 문화관>이 있으며, 2층에는 ‘은혜로운 빛을 따르다’라는 <나눔 실천관>과 ‘은혜로운 빛을 받들다’라는 <나눔 명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층은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라는 타이틀의 <상설전시관>으로 구성되어 김만덕의 전생애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게 전시 해 놓았다. 3층 <상설전시관>의 스토리텔링은 ‘의인 김만덕’, ‘만덕정신, 도전’, ‘만덕정신, 나눔’, ‘은혜로운 빛, 김만덕’, ‘김만덕 기념사업’, ‘빛을 잇는 사람들’, ‘만덕 객주터, 산지천 옛모습’의 순으로 이루어진다.⁶⁾ 현재 김만덕 기념관에서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6) <http://www.mandukmuseum.or.kr/>

II. 『최정숙』 자료 분석

최정숙 선생의 콘텐츠는 평전이 다수를 이룬다. 선생의 삶이 수도자와도 같은 것이었기에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대개 평전의 형태를 보인다.

최정숙 선생의 삶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별세 전 선생이 직접 증언하고 회고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제남일보 고익조 기자가 기사로 쓴 「내가 걸어온 길」이다. 1973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남일보에 총 7회에 걸쳐 게재된 「내가 걸어온 길」은 이후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작가들의 작업에 튼실한 사료가 되고 있다.

최정숙 선생에 대한 첫 번째 평전 작업은 1998년에 이루어진 한림화 작가가 쓴 「작은 불꽃 하나로 온누리를 밝힌 생애」로 이 글은 제주문화원에서 기획하여 발간한 『제주여인상』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2009년 신성학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직에 몸담고 있던 동화작가 박재형이 쓴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이 제주지역 출판사인 도서출판 각에서 발간되었다. 2015년 10월에는 이현주 작가가 쓴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이 한국재속프란치스코회에서 발간되었다. 그리고 2016년 3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 기획한 『불꽃이 향기가 되어』에 이미에 작가가 쓴 「교육과 의료로 제주를 일으킨 여성 선구자 최정숙」이 있다.

최정숙 선생의 평전은 선생의 다양한 업적만큼이나 여러 분야에서 기획하여 발간되었다. 먼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 선구자로서 제주문화원에서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록하여 발간하였으며, 제주도 초대 교육감으로서 신성여학교의 재개교에 힘을 썼던 선생의 공로를 기념하려는 제주도 교육계에서도 선생의 평전을 발간하고 있다. 선생이 공부하고 가르친 신성여학교와 관련한 각종 자료에서도 선생의 이름이 거론된다. 신성학원에서는 100주년 기념관에 선생의 흉상을 세워 기리고 있으며, 신성학원총동문회에서도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생을 수도자처럼, 순례자처럼 살다간 선생의 종교 가톨릭에서도 재속프란치스코회 등이 선생의 삶을 되짚어 보고 후

세의 신앙인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최정숙 선생의 삶을 평전으로 발간하였다.

최정숙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종교인으로, 교육자로, 의사로, 사회봉사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평전에서는 기획자의 의도에 맞춰 선생의 삶의 일부분을 부각한 경향이 크다. 즉 선생의 업적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고, 해당 분야의 이야기를 덧대는 정도에서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기관의 의도에 따라 쓰여진 최정숙 선생의 평전은 대동소이하며, 선생의 자서전 격인 제남일보의 기사에 의존하여 교육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년 최정숙 선생의 생애를 집필했던 작가 한림화는 최정숙 선생이 공적 기록을 빼놓고는 자신의 개인생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미리 다 버렸기 때문에 선생의 생애를 집필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컸다고 증언하였다(이현주, 2015: 179). 평소 수도자와 같은 소유없는 삶을 살았던 선생이었기에 이해되는 바가 없진 않지만 선생의 삶을 연구하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본장에서는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제남일보의 기사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교지 『신성』에 투고된 회고담, 2권의 단행본과 2권의 수록집에 실린 평전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정숙 선생 유품 전시회, 학술 세미나, 문화 축제와 그 밖의 논문, 시, 수필 등 다양한 책에서 선생의 삶을 다룬 자료를 찾아보고 향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기 발간된 평전과 최정숙 관련 행사 및 자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한계를 살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회고담

1) 「내가 걸어온 길」, 『제남일보』

최정숙 선생의 삶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제남일보에 실린 「내가 걸어온 길」로 최정숙 선생이 별세 전 제남일보 고익조 기자가 인터뷰한 것이다.

1973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남일보에 총 7회 게재된 「내가 걸어온 길」은 최정숙 선생 삶을 다룬 작가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73년 9월 17일자 기사에는 출생에서부터 신성여학교 입학에 대한 이야기, 가톨릭에 귀의하게 된 배경과 당시 제주도 사회에서 가톨릭에 대한 반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신성여학교 졸업 동기인 강평국, 고수선의 서울 유학길에 동행하지 못하고 집에 눌러 있게 되었으나 이후 서울 유학을 향한 열정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수백 통의 편지를 쓴 이야기 등 배움을 향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편입과 신성여학교에서 받았던 민족 교육으로 진명여학교에서 어려웠던 일본어 학습, 그리고 한국 학생을 동정했다고 하여 타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된 일본인 여교사를 위해 진정서를 내는 등 농성을 벌여 퇴학 위기에 처했던 사연, 진명고등보통학교 설립자 엄상궁의 아들 영친왕과의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9월 20일 신문기사에는 일본 유학을 포기한 채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입학하여 망국의 한, 일본인 교사에 대한 증오심으로 벽보를 붙이는 등 풍자를 일삼은 일화를 소개한다. 이는 주권회복의 염원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고종의 승하로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소녀결사대가 조직되었고, 당시 3·1 독립만세운동 학생봉기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소녀결사대원들은 일제의 포악한 탄압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순교자의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속옷에 주소, 성명, 학교, 고향, 부모 이름 등을 써서 붙여 파고다 공원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후 본과생이었던 최은희와 최정숙 두 사람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당한다.

9월 24일 기사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수감 과정과 석방 이후,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식을 참석하지 않은 채 제주에 귀향했으나 담임선생님이 졸업장을 우송해 주었다고 증언한다. 이후 학생봉기 주모자로 몰려 재수감되었으며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쪽지를 주고받은 이야기, 유관순 열사와의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1919년 10월, 진명여학교의 구명의지로 보석금 100원으로 석방되었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향에 내려와 여수원을 설립하는 등 제주지역 여성의 무지를 일깨우는 일에 매진한다.

9월 27일 기사에는 모교의 폐교 사실과 뒷이야기를 전하고 명신학교를 세운

과정, 과로로 인해 신병이 생겨 고생한 이야기와 지속적으로 겪은 신병으로 인해 의술을 배워서 박애사업에 봉사하게 된 결심을 기록하였다. 입학한 경성여의전에서 졸업할 무렵 고등학교 학제가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어 고등학교 학력 미달로 의사면허를 받을 수 없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이화여고 신봉조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이화여고 학생이자 위생감, 내과 의사 등 1인 3역을 감당하게 된 웃지 못할 에피소드와 성모병원에서의 근무 중 2차 세계대전이 극에 달해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아버지 최원순이 ‘죽어도 같이 죽자’는 간곡한 청에 의술을 더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한 채 귀향을 한다.

10월 1일 기사에는 정화의원을 개원하고, 전쟁 말엽 의약품의 품질로 민간요법을 권하게 된 상황, 군의관이란 감투로 육군병원에 근무하게 된 사연을 전한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인 군속들이 정화의원에 찾아와 치료와 먹을 것을 요구해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팔았으며, 해방의 소식과 함께 태극기를 그려 광복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으나 태극기 원본을 분실한 아쉬움을 기록하였다. 나라를 찾은 기쁨과 동시에 글 모르는 동포를 일깨우기 위해 부녀회를 조직, 문맹퇴치를 위해 교육을 시켰으며, 폐교된 신성여학교의 부흥을 논의하고, 여자중학교 허가를 받아 선성 무보수 초대 교장을 맡게 되었다. 선생은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해서 수감되었기에 수녀가 될 수 없었으나 독신으로 천주님을 모실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한다.

10월 4일 기사에는 1948년 4·3 사건으로 공산당으로 몰려 직결처분을 당하게 되어 죽음 앞에 놓였으나 가톨릭 신자가 공산당에 가담할 리 없다는 소대장의 재조사 명령으로 오해를 풀려 석방되었으며 이후 여성계몽을 위해 힘쓴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한 6·25 동란으로 제주에 피난 온 지인들의 뒤치다꺼리를 한 이야기, 제주신성여자고등학교 설립 추진으로 초대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교육 사업에 몰두한 끝에 로마교황훈장을 수여받았고, 이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부지 사장에 피선되는 등 제주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력을 기록하였다.

10월 8일 마지막 기사에는 5·16 민족상 수상 이야기와 제주도 초대 교육감에 피선되어 고집불통 교육감으로 불리게 된 내력, 교육감 재직 당시 중요 업적 등에 대해 기록하고 무보수 교장과 정화의원을 개원하였지만 무료 진료를 실시한 데서 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서술하고 있다. 최정숙 선생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청빈의 정신을 가지면 천국의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 믿으며 회고의 글을 마무리한다.

제남일보 기사는 최정숙 선생의 회고를 통해 시간 나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정숙 선생과의 인터뷰 내용에 의존하긴 하였으나 기관의 설립 및 연대 서술과 일치하는 내용들로 공적기록에 해당하는 일정을 통해 최정숙 선생의 당시 생각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가톨릭 신자로서의 삶과 신성여학교와의 인연,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여학생이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로서의 역경, 모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교육자로서의 삶, 청빈했던 지난 세월과 로마교황훈장 및 5·16 민족상을 수상하는 등 최정숙 선생이 겪은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제남일보 기사는 회고의 형식으로 당시에 기록되지 못한 채 기억에 의존하였지만, 현존하는 최정숙 선생과 관련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최정숙 선생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수 있다. 기존에 발간된 최정숙 평전 또한 「내가 걸어온 길」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였다. 제남일보의 회고담을 통해 선생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강렬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최정숙 선생이 걸어온 길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시밭길을 걸어온 신성」

제남일보의 기사 외 회고 자료로는 신성학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신성』 제6호에 기고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신성」이 있다. 최정숙 선생이 제주도 교육감 재직 당시 작성한 자료로 신성백년사⁷⁾에 재수록되었다. 최정숙 선생은 회고의 글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고장에 여성교육기관으로 손색이 없는, 그리고 가장 충실한 학교 ‘신성’은 그 움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이들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인지 6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새삼 되새겨보는 것은 꼭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며 시간이 흐른 이후 기억에 의한 회고임을 밝히고 있다.

선생은 이 회고담에서 해방 전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자 라크루 신부님’, ‘신성여학교 창립’, ‘여수원 시대’, ‘명신학교 시대’, ‘갑자의숙시대’ 등 연

7) 신성학원총동문회(2009), 「가시밭길을 걸어온 신성」, 『신성백년사』

대기적으로 신성여학교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있다. 망국의 설움을 일깨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던 신성여학교 고성보, 고원봉, 홍두표 선생님의 이야기와 졸업 기념 식수에서 애향심을 말하며 나무를 심게 한 기억, 처음으로 애국가를 배운 것은 눈물 어리도록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신성여학교는 경영난과 일제의 탄압으로 1916년 한 많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게 되었으며, 신성을 나온 여성은 줄곧 배우고 닦아 제주도 부녀계 운동의 선구자로 활약해 왔고 현재도 부녀운동 및 교육계의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신성여학교의 폐쇄로 시작된 여성교육 재건과정에서 평생을 두고 선생이 제주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과 날로 심해지는 일제의 감시와 압박, 경영비 조달의 난점과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 눈물에 대해서도 회고하고 있다. 신성의 설립 동기와 가시밭길을 걸어온 역사를 이야기함은 어려웠던 시절의 숭고한 뜻을 기려 꾸준히 이 고장이 나라의 동량이 되기에 부끄럼 없는 교육을 받아줄 것을 재학생들에게 당부하는 의미이다.

2. 평전

1) 「작은 불꽃 하나로 온누리를 밝힌 생애」

1998년 작가 한림화는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제주여인상』이라는 책에 「작은 불꽃 하나로 온누리를 밝힌 생애」라는 제목의 최정숙 평전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정숙 선생의 평전으로는 가장 먼저 출간된 것으로 이후 최정숙 선생의 평전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제주여인상』은 어려웠던 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극복한 제주여인의 삶을 부각시켜 제주여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삼다도라는 섬 제주에서 ‘다녀(多女)’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주여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책에 담아냈다. 이 책에는 신화 인물인 설문대 할망, 자칭비, 명진국 따님아기, 여산부인, 백주할망으로부터 열녀 홍윤애, 김만덕, 독립운동가 김시숙,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그리고 제주해녀들의 삶을 다루

고 있다.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는 93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이는 21명의 신화와 역사 속 인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림화의 평전은 공적 기록을 제외한 개인생활의 자료를 모두 버렸던 최정숙 선생의 삶을 평론이라는 형식으로 처음 기록했다. 또한 소설가이기도 한 작가의 역량으로 기존의 연대기적 평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소설의 형식을 빌어 선생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프롤로그 형식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생의 아버지인 최원순 검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선생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 필요한 주변 가족들의 이야기를 선생의 평전에 함께 녹여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한림화 작가는 마지막 에필로그에 최정숙 선생의 회고 기사인 〈내가 걸어온 길〉 칼럼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선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선생이 남긴 유물인 낡은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어린이용 아스피린 몇 알, 시골부녀자들이 애용하는 두통약 뇌선 몇 포, 일회용 반창고 등을 나열하며 한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는 준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낡아빠진 휴대용 반질고리에 들어있는 바늘과 실을 통해 근검절약하며 섬세한 여성이며 어머니였다고 평하고 있다.

한림화의 최정숙 평전 「작은 불씨 한 톨로 온누리를 밝힌 생애」의 목차를 살펴보면 ‘작은 불씨 한 톨을 품다’, ‘넓은 삶의 항해에서 등대 찾기’, ‘방랑하는 작은 영혼’, ‘그 불씨, 햇불로 타올라 세상을 환히 밝히고’, ‘온누리를 밝히던 큰 불꽃이 별이 되는 시점’이다. 『제주여인상』이라는 수록집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 한림화의 글은 제목과 목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의 강인한 여성으로서, 제주 여인의 선구자로서 선생의 삶에 초점을 맞춰 기획하고,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한림화의 평전은 선생의 삶을 기록한 첫 번째 평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적 기록을 제외하고는 선생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쓰여진 최정숙 선생의 평전으로 선생이 걸어온 삶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이후 최정숙 선생의 평전을 기획하고 발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침서로서 영향을 주었다.

2)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을 쓴 박재형은 그의 책머리에 신성여중 교장으로 퇴임한 김경환 선생님께서 최정숙 교육감 전기를 어린이나 어른이 쉽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망설이다 2009년 신성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 책을 써 냈다고 밝히고 있다(박재형, 2009: 10). 최정숙 선생의 평전을 쓰게 된 계기가 신성학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였기에 이 책에는 신성학원의 역사와 제주교육의 역사를 중심으로 선생의 지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정숙 선생은 교육의 힘을 믿었다. 그리고 선생의 삶이야말로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준다. 선생은 자신의 배움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이 나고 자란 제주 여성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애쓴다. 이 책은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엄격했던 선생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그림에도 자신이 배운 의술을 통해 어려운 이들의 아픔은 물론 배고픔과 주린 마음까지도 채워준 넉넉한 인심을 보여준 선생의 삶을 그려낸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내는 강인한 의지와 집념,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삶이야말로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표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선생이 쓴 회고의 글을 토대로 선생의 일대기를 작성하였지만 선생의 교육적 업적에 치중하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호기심이 많은 아이’, ‘신성학원 학생이 되다’, ‘작지만 똑똑한 아이’, ‘가고 싶은 서울여학교’, ‘춘년 출세하다’, ‘삼일만세 운동에 참가하다’, ‘서대문형무소로’, ‘여수원과 명신학교’, ‘광복이 되다’, ‘신성여학교 교장이 되다’, ‘4·3사건의 혼돈 속에서’,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삶’, ‘6·25전쟁 후, 태어난 신성여고’, ‘천주님께 영광을’, ‘정든 학교를 떠나다’, ‘제주도 교육감으로 선출되다’, ‘천주님 곁으로’로 구성되어 있다(박재형, 2009: 13).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정숙 선생이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학생으로서 배움의 가치를 찾았던 순간과 제주 교육의 선구자로서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장으로, 초대교육감으로 교육 일선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부각되어 있다. 교육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기여한 바가 큰 최정숙 선생의 삶을 교육계의 일원이기도 한 저자가 정확한 시각으로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정숙 선생의 일대기를 단행본으로 발간한 첫 번째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선생은 경성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여수원을 설립하는 등 제주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교육에 힘을 썼으며, 이후에도 목포 소화학교, 전주 해성학교, 신성여학교 등에서 교사와 학교장,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역임하는 등 자신의 삶을 교육에 온전히 투신했다. 교육자로 일평생 제주 교육을 섬겼던 선생의 삶이었기에 교육적 업적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최정숙 선생의 교육자로서의 업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선생이 실천했던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에 비해 교육 외의 이야기의 비중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3)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한국재속프란치스코회 인물전 발간의 일환으로 진행된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은 2015년 10월 4일에 발간되었다. 재속프란치스코회⁸⁾ 한국 진출 75주년 기념 인물전은 재속프란치스코회 사람들의 관점에서 훌륭한 귀감이 되는 선배들의 모범적인 삶을 조명하고자 책을 발간하였으며, 이 발간된 인물로는 장면, 오기선, 김익진, 김홍섭 등이 있다. 이 책은 신성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박재형의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에 기초하여 집필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이요 재속프란치스코회인 최정숙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리고 자신에게는 여벌의 옷도 남겨두지 않았던 최정숙 선생은 진정으로 복음적 가난을 산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른 순례자였다.

이 책은 제1장 ‘독립운동가가 되다’, 제2장 ‘교육자의 길을 걷다’, 제3장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의사가 되다’, 제4장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살고 가르치다’로 구성되어 있다. 최정숙 선생의 다양한 업적을 독립운동가, 교육자, 의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한 재속프란치스코회인으로서의 모범적 삶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 책에서는 이전의 책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선생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을 빌어 전하고 있다. 이는 선생의 삶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주변 이 중에는 최정숙이 정화의원 의사시

8) 세속에 살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상의 성화를 위해 힘쓰는 신자들의 단체. ‘프란치스코 제3회’라고 하던 것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78년 새 회칙을 인가하면서 붙여준 명칭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3590&cid=50762&categoryId=50768>

절 함께 간호사 생활을 했던 조성에 수녀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조성에 수녀는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으로 알려진 작가로 마지막 사형수였던 김용제와 편지글을 주고받았던 이다.⁹⁾ 저자는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 최정숙 선생이 뿌린 씨앗이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 그 이상임을 시사한다.

이 책은 가톨릭 신앙을 믿는 종교인 중에서도 수도자와 같은 삶을 언약하며 살았던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최정숙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한국 교회 역사의 큰 빛인 최정숙 선생의 삶을 재속프란치스칸 회원들이라는 독자층에 한정하여 글을 썼다. 바른 삶을 살았던 재속프란치스칸의 삶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글을 썼기에 이야기의 주된 흐름을 종교인으로서의 최정숙 선생에 두고 있다. 선생의 삶의 다양한 면모를 개략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사회봉사와 청렴한 삶을 산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면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최정숙 선생의 삶과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선생이 이룩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의 삶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4) 「교육과 의료로 제주를 일으킨 여성 선구자 최정숙」

최정숙 선생의 평전 작업 중 가장 최근 자료인 『불꽃이 향기가 되어』는 가톨릭 평신도로 모범을 보인 김익진, 김홍섭, 최정숙, 서상돈, 장면 등 5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최정숙 선생에 대한 이야기 「교육과 의료로 제주를 일으킨 여성 선구자 최정숙」은 앞서 2015년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 평화신문 지면을 통해 [빛과 소금 -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불꽃이 향기가 되어』에 실린 최정숙 선생의 평전 내용은 72쪽으로 기존에 발간된 최정숙 선생의 내용을 종교인의 시점을 부각시켜 그 가치와 의미를 기술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글의 말미에 최정숙 선생의 삶을 정리하고, 글로 옮기면서 느꼈던 종교적 의미에서 대해 서술하면서 참된 종교인으로서 최정숙 선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 의료로 제주를 일으킨 여성 선구자 최정숙」의 소재

9) 조성에, 김용제(2009), 『마지막 사형수』, 서울: 형설라이프

목을 살펴보면, ‘주님께 드리는 작은 꽃’,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해주는 성모 마리아의 별’, ‘주님, 누구를 위해 등불을 밝힙니까’, ‘어두움의 빛은 너무 밝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끓주리고 헐벗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등불을 지키는 일’, ‘그분은 가난한 사람 속에 계시다’, ‘미천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이미애, 2016: 11) 이다. 책의 기획 의도와 저자가 선정한 소재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불꽃이 향기가 되어』에 실린 이미애 작가의 최정숙 평전은 최정숙 선생의 일대기에서 종교적 가치를 우선하여 수도자처럼, 순례자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산 선생의 삶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정숙 선생이 걸었던 평생의 길에서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선생의 업적을 종교인의 시선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정된 점은 이현주 작가의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에게까지 선생의 숭고한 뜻을 전하고, 선생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스토리텔링으로서는 한계를 보인다.

3. 최정숙 관련 행사

최정숙 관련 행사는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선생의 모교 졸업생들이 모임인 신성학원동문회의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제주지역 신성여중고 동문들을 중심으로 선생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고 있으며, 최정숙 유품 전시회와 선배들의 독립운동의 길을 따라 걷는 도보 순례 등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졌다.

2015년 5월 15일에는 최정숙 학술 세미나가 ‘시대를 선도한 제주여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¹⁰⁾와 신성학원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강인한 제주 여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되짚어보

10) 제주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문화 전승 및 창조를 위하여 설립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26076&cid=51955&categoryId=55498>

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숙 학술 세미나는 3개의 주제 발표로 이루어졌다. 세부 내용은 허영선 강사가 발표한 「도전과 실천, 최정숙의 시대정신」, 한금순 강사가 발표한 「제주도 여성의 항일 운동과 최정숙」, 김순자 강사가 발표한 「신성학원과 최정숙 교육감」이다. 그 외 재개교된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며 최정숙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강경연 씨의 증언도 있었다.

2016년 5월 15일에는 ‘우리들의 스승’ 『최정숙 문화 축제』가 신성학원동문회와 선홍꽃밭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애국지사인 ‘신성의 딸’ 최정숙 선생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스승의 날에 시작된 행사는 헌화, 시낭송, 축하공연, 창작극, 전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최정숙 학술 세미나 『시대를 선도한 제주여성』

허영선 강사는 「도전과 실천, 최정숙의 시대정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원도심 문화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최정숙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도전과 실천으로 살아온 선생의 시대정신 부활을 촉구하였다. 최정숙 선생에 대한 재조명의 하나로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향토사 교육 등을 통해 학습해야한다고 말하며 기념 사업회 등 구심체를 만든 후 그의 이름을 딴 작은 도서관 조성이나 선생의 일대기 복원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일상으로 자꾸 불러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정숙 선생이 학업의 꿈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5·16 민족상을 수상한 상금을 쾌척해 만들었던 정화장학회는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모른다면 안타까워했으며, 선생의 끝없는 헌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장학회 부활을 비롯하여 봉사상과 사도상 제정 등도 고려할 일이라 말했다. 암울했던 시대에 태어나 여성리더십을 발휘하며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썼던 최정숙의 시대정신이 야말로 미래의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선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¹¹⁾

한금순 강사는 「제주도 여성의 항일 운동과 최정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삶은 국권회복이란 화두를 향한 활동의 연속이었으며 제주여성으로 항일 운동에 참여한 선생의 행적을 기려야 함은 국가존립과도 맞먹는

11) 제주신보, “최정숙, 국가적·역사적 인물로 재조명해야”, 2015년 5월 18일, 김현중 기자

것이라고 말했다.¹²⁾

신성여학교 출신인 김순자 강사는 「신성학원과 최정숙 교육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정숙 추모사업과 함께 시대를 앞서간 선각여성을 발굴, 조명하는 사업으로 기념 사업회를 펼치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김순자 강사는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¹³⁾에 「교육감·여교장 제주여성 1호 최정숙」이라는 제목으로 최정숙 선생의 대해 투고 하였으며,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발간한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 도록에 투고된 최정숙 선생과 관한 글도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의 원고를 수정, 발표한 것이다.¹⁴⁾

2) 최정숙 유품 전시회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展』

“최정숙 선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가 뭔가 많은 것을 가졌으리라 생각했으나, 정작 그는 집 한 채 없었다. 돈 벌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열어 태평양 전쟁 말기 군속들을 돕다보니 곤란을 겪었다. 또한 신성여학교 교장이었으나 30여 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서 돈을 만져보지 못했다. 판사의 딸이었으나 물질적인 유산은 없었다. 단벌 통치마 저고리로 살았던 그의 삶은 청빈, 그 자체였다(제주교육박물관, 2015: 142).”

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교육박물관과 신성학원총동문회가 주관한 최정숙 선생의 특별전시회가 2015년 8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렸다. 최정숙 선생은 여성으로 전국 최초 초대 교육감을 지낸 교육자이며,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종교인으로 제주를 위해 헌신한 선각자였다.

유품전에는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형무소 수감 시 사용했던 그림 손수건, 부채, 로마교황훈장, 의사면허증, 십자가 펜던트, 상장, 수료증 및 졸업장, 상패와 트로피, 생활용품, 서신, 사진, 신문기사 등 200여 점이

12) 한라일보, “시대를 선도한 제주여성 최정숙의 시대정신”, 2015년 5월 15일, 정신중 시민기자

13)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5), 「교육감·여교장 제주여성1호 최정숙」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14) 제주교육박물관(2015), 「최정숙의 숭고한 업적과 뜻, 큰 등불로 남아 있어」, 『초대교육감 최정숙선생 유품전』

전시되었다.

제주의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은 신성여학교의 첫 번째 입학생이자 졸업생이기도 하며, 잠시 끊겼던 학교의 역사를 다시 잇고, 30여 년간 무보수로 학교를 이끌며 이바지한 교육의 산증인으로 오늘날 제주 명문 신성여자중고등학교의 모태이기도 하다. 선생이 떠난 지 벌써 4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 제주에는 선생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선생의 땀이 남아 있는 신성여학교뿐 아니라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선생의 발자취를 잊지 못하고 선생을 추모하고 미래 세대에게 본으로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로 이어진 것이다.¹⁵⁾

선생에게 본받을 것들이 선생이 펼쳐 놓은 독립 운동, 교육 사업, 의료 사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올바른 교육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고, 가난한 이를 치료하기에 앞장섰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선생은 단호하게, 청렴하게 한 세상을 살다갔다. 선생이 남긴 유품들이 전시장의 한 구석을 채운다. 누가 보더라도 소박한 밥상이요, 검소한 삶이었던 선생의 삶은 리더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다. 선생이 걸어온 교육자이자 수도자로서의 삶의 길에 로마의 교황청,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제주도지사 등 많은 이들의 표창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정숙 선생이 대단한 진짜 이유는 선생이 세상을 뜬 40여 년 후에도 여전히 선생을 따르고, 잊지 못하는 수많은 제주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¹⁶⁾ 다만, 신성학원과 제주교육계에서 그 숭고한 뜻을 기렸던 것과는 달리 제주교육박물관을 찾아 선생의 고단했던 삶을 체험하고, 느끼려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는 전시 콘텐츠로서의 지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15) <http://blog.naver.com/blueways/220465922197>

16) <http://blog.naver.com/blueways/220465922197>

3) 우리들의 스승 『최정숙 문화 축제』

2016년 5월 15일부터 21일에는 우리들의 스승 『최정숙 문화축제』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꽃밭에서 열렸다. 신성학원총동문회와 선흘꽃밭이 주최하는 행사로 애국지사인 ‘신성의 딸’ 최정숙 선생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자리였다. 본 행사에 앞서 신성학원 동문들이 최정숙 선생께 헌화를 하는 사전 행사로 최정숙 문화축제가 시작되었다. 본 행사는 시낭송, 신성동문합창단의 공연, 선생의 일화를 극화한 창작극 「우리 깨어나자!」와 전시 행사 「최정숙의 삶」으로 구성되었다. 꽃밭에는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담아낸 배너를 설치, 최정숙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했다.

최정숙 선생의 일화를 극화한 「우리 깨어나자!」는 여수원을 설립했던 최정숙 선생의 일화를 바탕으로 신성학원 동문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여성 교육을 향한 열정을 품었던 최정숙 선생의 삶을 연기를 하였다. 젊은 여성들을 비바리¹⁷⁾라 부르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제주에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한 선생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재조명하였다. 전시행사인 「최정숙의 삶」은 최정숙 선생의 사진과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 선생을 그린 초상화 등을 전시하였다.

그 밖에 2016년 3월 1일에는 97주년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제주 신성의 딸 강평국·고수선·최정숙의 독립운동의 길을 따라 걷다』행사가 펼쳐졌다. 신성학원 동문들은 명동성당에서부터 걷기 시작하여 독립선언을 외쳤던 탑골공원, 창덕궁, 서대문 터, 덕수궁의 대한문, 소공동을 거쳐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약 8.7km의 거리를 도보로 순례하였다.

4. 기타

평전 외 최정숙 자료로는 시와 수필이 있다. 이윤옥 시인은 자신의 시집에서 여성독립운동가로서 최정숙 선생을 기리고, 헌시를 통해 그 숭고한 삶을 노래한

17) 바다에서 바닷말, 조개 따위를 채취하는 처녀를 일컫는 말

다. 교육자로서 수필집을 낸 이영운은 자신의 책에 실은 최정숙 관련 수필을 통해 최정숙 선생의 교육자이자 스승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1) 시 「의사요 교육자인 독립운동의 화신 최정숙」

시인 이윤옥은 자신의 시집 『서간도에 들꽃피다 <4>』에 「의사요 교육자인 제주 독립운동의 화신 - 최정숙」과 관련한 시를 남겼다. 이윤옥 시인은 이 책에서 남자들 못지않게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성들, 눈보라 치고 살을 에는 찬바람 속에서 여자로서의 꿈과 이상을 접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숨져간 이 땅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삶을 기리며 그녀들에게 헌시를 바치고 있다(이윤옥, 2014: 7).

의사요 교육자인 제주 독립운동의 화신

최정숙

내나라 임금 승하에
목 놓아 울지 못하던
백성들 틈에 끼여

속치마에 이름 석 자 새기고
만세운동 나간 뜻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외다

행여 찾지 못할 주검들 속에
오열하실 어머니를 위한
가슴시린 마음이었다오

혈벗고 병든 내 동포
의사되어 고치리라
못 배우고 무지한 내 동포

제대로 가르치리라

맹세한 각오

다 이루던 날

소녀 적 꿈 수녀 옷 입고

웃으며 눈 감았다네

짧막한 시 한편에 독립운동가로 강렬한 삶을 살았던 선생의 열이 담겨 있다. 시집 『서간도에 들꽃피다 <4>』(134-139쪽)에는 독립운동가인 선생의 삶을 기록하고, 선생의 며느리 김정희 여사와의 인터뷰와 최정숙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신성학원에 대한 이야기, 독립운동 유공자로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2) 수필 「한국의 큰 별, 최정숙 여사」

현재 제주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영운은 그의 수필집 『사랑하는 사람 가지지 마라』에서 「한국의 큰 별, 최정숙 여사」라는 제목으로 최정숙 선생에 대한 수필을 썼다. 그의 글에는 ‘수도자를 꿈꾸다 독립운동가로’, ‘여성 계몽운동에 이어 애덕의 길로’, ‘의사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가난했던 삶’ 등 최정숙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으며, ‘나와 최정숙 선생님’을 통해서 최정숙 선생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선생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다. 이영운은 그의 책에서 어려운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선생님 댁에 드나들며 세배도 빼놓지 않았으며, 고교 3년 동안 최정숙 선생 댁에서 산 인연, 함께 심은 목련 꽃모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영운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선생으로서 어린 시절 최정숙 선생과 가까이 지내며 갖게 된 교직에 대한 마음, 교사와 스승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참 스승이었던 최정숙 선생의 일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교사뿐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도 선생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받들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을 자신의 글에서 전하고 있다.

3) 논문 「최정숙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한금순은 『제주도연구』 제44집에 투고한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에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구속 수감되어 재판받았던 관련 문서 9종 16개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문서는 「신문조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 「청구의견」, 「의견서」, 「예심종결결정서」, 「공판시말서」, 「판결문」, 「수형인명부」, 「상소포기신청서」 등이다.

재판관련 문서 분석을 통해 최정숙 등 당시 학생들의 시대 인식과 재판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충무로에 있던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종로, 무교동, 대한문으로 갔다가 다시 종로, 창덕궁, 경복궁, 광화문에서 서대문, 서소문, 소공동을 지나 충무로 일대로 가 만세를 부르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체포되었던 당시 독립만세운동의 동선도 확인하였다.

3월 1일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10월 29일 공판이 있었고, 11월 6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모두 계산해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최정숙 선생은 일제강점기 내내 교육 활동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국권회복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으로 여성 문맹퇴치와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에 주력하였고, 이는 3·1운동 이후 실력 배양이라는 화두에 힘을 모았던 청년활동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⁸⁾ 한금순의 연구는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의 생애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치를 가진다.

그 밖에 제주도에서 발간한 교육, 제주도 여성, 독립운동, 가톨릭 관련 분야 100년사, 수록집 등에 최정숙 선생과 관련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교육의 발자취』, 『제주교육행정발전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제주여성사2』,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발간한 『제주 천주교 100년사』 등에도 최정숙 선생 관련 업적 및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8) 한금순(2015), 「최정숙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제44집

〈표 1〉 최정숙 관련 자료 목록(연도순)

연번	제목	저자	형태	연도	주관
1	「내가 걸어온 길」 『제남일보』	최정숙	회고/신문	1973년	
2	『제주여인상』	한림화	수록집/평전	1988년	제주 문화원
3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업적	1996년	제주도
4	『제주 천주교 100년사』		교회사	2001년	천주교 제주교구
5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김순자	수록집/평전	2005년	제주도
6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김순이	수록집	2009년	제주발전 연구원
7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박재형	평전/단행본	2009년	
8	「가시밭길을 걸어온 신성」 『신성백년사』	최정숙	수록집/회고	2009년	신성학원
9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양진건 외	교육사/업적	2011년	제주도 교육청
10	『제주여성사Ⅱ 일제강점기』		업적	2011년	제주발전 연구원
11	『사랑하는 사람 가지지 마라』	이영운	수필집/수필	2013년	
12	「최정숙 교육감 평전」 『제주문우 창간호』	현화진 외	수록집/평전	2013년	제주도 문우회
13	『서간도에 들꽃피다 <4>』	이윤옥	수록집/시	2014년	
14	『시대를 선도한 제주여성 최정숙』	허영선 외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년	신성학원 총동문회
15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	제주교육 박물관	전시/도록	2015년	제주교육 박물관
16	「최정숙 3·1운동 재판관련 문서분석」 『제주도연구』	한금순	학술논문	2015년	
17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이현주	평전/단행본	2015년	
18	『불꽃이 향기가 되어』	이미애	수록집/평전	2016년	평화신문

Ⅲ. 스토리텔링을 통한 『최정숙』 콘텐츠 전략

1. 역사 인물 『최정숙』 스토리텔링

1)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을 함에 있어서 평전이 가지는 콘텐츠의 가치와 서사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사학자 패트릭 오닐은 자신의 책 『담화의 허구』에서 “서사 자체의 영역을 벗어나서 허구성 내지 비허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서사 외적인 분류 표지나 장르 표지들, 그리고 맥락적인 표지들에 대한 독자의 수용 내지 거부인데, 이런 분류 및 장르 표지에는 ‘소설’, ‘전기’, ‘자서전’, 또는 ‘역사’ 등과 같은 표지들이 있다”(O'Neill, 2004: 27)라며 단지 서사체들이, 허구인가 비허구인가, 또 문학적인 것인가 비문학적인 것인가를 수용하는 경계선이 분명치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오닐은 “모든 서사의 근본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서사는 반드시 이야기되는 스토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수신자가 전달 받을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이다.”(O'Neill, 2004: 25)라고 말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이루는 원형질은 사건의 소재와 이야기의 구조로 어떤 사건의 소재가 이야기의 구조를 갖는 것은 서사성을 갖는다고 말한다(한교경, 2013: 108).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며 스토리에 담겨진 정체성과 모든 요소들이 갖는 의미들을 밝혀내는 것이라 하며 서사연구의 접근방식은 첫째, 메시지 내용의 서술행위는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며, 둘째, 메시지 내용의 재현과 의미작용은 서사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의미화 시키는 방식에 대한 재현이라는 측면의 접근방

식이고, 셋째, 메시지 내용의 서사적 구조는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인물, 배경, 사건 등이 독특한 하나의 전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결합되는 방식에 관한 접근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한교경, 2013: 108-111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속 인물의 삶의 스토리텔링에는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말하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면 메시지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의미화를 시킬 수 있는지,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들이 어떻게 독특한 하나의 전체성의 조화를 이루며, 인물이 가진 사건의 소재, 이야기의 모티브 등을 어떻게 서사성을 갖는 이야기의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역사 이야기의 서사 형식 구조

소설에 대한 서사연구를 영화에까지 확대하여 매체적 특수성을 넘어 서사라는 동질한 특성을 문화적 담론으로 확장시켜 서사이론의 확립을 추구한 채트먼은 그의 책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에서 “서사물은 하나의 구조로, 언어학과 기호학의 일반 과학인 기호학은 표현과 내용간의 단순한 구분으로는 의사소통 상황의 모든 요소를 포착하는 것이 불충분함을 가르쳐 준다. 이 구분을 가로로 나눈다고 할 때, 실체와 형식 간의 구분이 생긴다(Chatman, 1990: 24).”고 말한다.

〈표 2〉 채트먼의 서사형식 구조(Chatman, 1990: 26)

	표현	내용
실체 Substance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어떤 매체들은 원래부터 기호론적 체계이다)	작가가 속한 사회의 코드를 통해 여과되는 것으로써, 서사적 매체 속에서 모방될 수 있는 현실 및 상상세계의 대상들과 행위의 묘사
형식 Form	어떠한 매체이든 간에 그 매체를 통한 서사물들에 의해 공유되는 요소들로 구성되는 서사적 담화 (서사적 전달의 구조)	서사적 이야기 구성요소들; 사건들,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

채프먼의 서사형식 구조를 적용하여 윤유석은 역사 이야기의 서사형식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서사형식 구조를 역사 이야기로 적용해보면 역사 속 모든 인물, 사건, 배경은 내용의 형식에 해당하며, 작가가 내용에 표현한 인물, 사건, 배경은 내용의 실체가 된다. 여기에서 내용이 서사적으로 전달되는 표현 요소, 즉 문자, 말, 이미지, 영상 등의 형식과 장르적 서사전달 구조는 표현의 형식이 된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표현된 소설, 영화, 만화, 전시 등이 역사이야기의 표현 실체가 된다. 하나의 실체로 표현된 영역이 역사이야기이다. 그리고 창작자들이 언급하는 사건과 존재가 내용의 실체가 된다. 내용이 표현된 것이 역사 이야기로 그 실체는 각각의 서사전달 구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표 3〉 역사 이야기의 서사형식 구조(윤유석, 2014a: 189)

	표현	내용
실체 Substance	소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전시, 축제, 관광, 웹서비스	현재의 작가나 기획자들에 의해 표현된 역사 속 존재들
형식 Form	담화 요소와 서사전달 구조	역사 속 실제 혹은 가상의 인물, 사건, 공간, 사물 등의 존재들

여기에서는 채프먼과 윤유석의 서사형식 구조를 통해 최정숙 선생의 4편의 평전 중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 박재형의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과 이현주의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기획 전시된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의 서사형식 구조를 살펴본다.

〈표 4〉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서사형식 구조

	표현	내용
실체 Substance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박재형이 교육자이자, 초대교육감이었던 최정숙 선생의 업적, 사건, 공간 등
형식 Form	평전, 인쇄매체	제주일보 『내가 걸어온 길』에 기록된 내용과 한림화의 글, 신성백년사, 제주교육사의 인물과 사건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저자 박재형이 제주일보에 회고한 『내가 걸어온 길』의 내용과 『제주여인상』에 수록된 한림화 작가의 글, 『신성백년사』 등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을 형식으로 하여 최정숙 선생의 일대기적 사건을 교육자의 측면에서 공간, 업적 기술, 평전이라는 인쇄매체를 통해 이야기하는 서사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5〉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의 서사형식 구조

	표현	내용
실체 Substance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이현주가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선생의 삶을 재구성.
형식 Form	평전, 인쇄매체	제주일보 『내가 걸어온 길』에 기록된 내용과 박재형의 책, 가톨릭사 인물과 사건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저자 이현주가 제주일보에 회고한 『내가 걸어온 길』의 내용과 박재형의 책, 가톨릭 역사, 『신성백년사』 등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을 형식으로 하여 최정숙 선생의 일대기적 사건과 공간, 업적을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최정숙 선생의 삶에 포착하여 기술하였

으며, 평전이라는 인쇄매체를 통해 이야기하는 서사형식의 구조를 보인다.

〈표 6〉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의 서사형식 구조

	표현	내용
실체 Substance	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시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최정숙의 유품을 중심으로 교육자의 삶을 재구성.
형식 Form	전시 기획, 인쇄 매체, 유품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를 역사적 시각을 더해 선생이 남긴 유품을 통해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제주교육박물관과 신성학원총동문회의 주관으로 현재 남아 있는 선생의 기록, 유품, 서신, 상훈 자료 등과 선생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독립운동가이자 초대교육감으로서의 업적과 선생의 일대기적 사건 등에 중점을 두고 전시, 기술하였으며, 전시라는 공간 활용을 통해 이야기하는 서사형식의 구조를 보인다.

2. 최정숙의 서사

1)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서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물 중 만인에게 추앙받으며 스토리텔링이 되어 널리 회자된 인물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떴거나, 결정적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많다. 제주 근현대 인물 중 선각 여성이라 칭할 수 있는 신성여학교 1회 입학생이자 졸업생이었던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 선생 중에서도 일본 유학 중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강평국 선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심을 보이는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¹⁹⁾ 스쳐지나가는 바람처럼,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이들의 비극에 더욱 관심이 끌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는 채 이루지 못하고 마무리된 연극의 무대처럼 누군가는 그 무대를 완성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제 명을 다 살다간 선각자는 세상의 관심을 받기 힘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로 1909년 태어나 1935년 1월 23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짧은 생을 살았던 최용신은 1931년 10월 안산 샘골마을에 들어가 3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문맹퇴치와 농촌계몽 활동을 전개하며 짧은 생애를 불태웠고,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1935년 1월 27일자 조선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최용신 별세 소식이 기사화되어 “수원군하의 선각자, 무산아동의 자모, 이십 육세의 일기로 최용신 양 별세, 사업에 살든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잡지사의 한 기자가 수원군 반월면 사리의 천곡학술강습소를 찾아 최용신의 흔적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이 1935년 잡지 『新家庭』에 실렸고, 잡지사의 필자로 참여하던 소설가 심훈이 5월-6월 경 작성하여 『상록수』라는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짧은 생을 살다간 선각자의 면모가 완성되었다(윤유석, 2009: 164-167참조).

최용신이 이룬 업적도 위대하지만, 76년이란 긴 세월 속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큰 업적을 쌓은 최정숙 선생의 생애 또한 여성 선각자로서 면모를 드러낸다. 최용신보다 7년 앞서 태어나서 신성여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서울로 유학을 가서 조국을 잃은 망국의 설움을 안고 살았던 선생의 삶이야말로 평범한 삶 속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도전과 실천의 삶, 척박한 제주에서 태어나 여성을 깨워 보려던 여성 선각자가 아닐까. 긴 세월의 삶 속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스스로의 확고한 독립의식을 함양하고 있었던 것뿐 아니라 교사로서, 학교장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편달하는 과정에서도 민족적 의식을 함양키고, 문맹 퇴치에 앞장섰던 선생의 삶의 조각들은 그런 선각자적 삶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정숙 선생의 서사를 살펴보고, 전생애의 서사구조 속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으로 한정하여 제시해 보았다.

19) 제주발전연구원(2009), 「불꽃의 비극, 현실의 영광-화북동 강평국· 최정숙 묘」, 『제주여성 문화유적100』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서사〉

- ① 명월만호의 손자이자 친일파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다.
- ② 신성여학교에서 민족 교육을 받는다.
- ③ 일본 교사들로부터 조선인 차별 교육을 받는다.
- ④ 불모로 잡혀간 영친왕과 만난다.
- ⑤ 고종황제가 승하하고 민족적 고난에 합류한다.
“운 백성이 슬퍼하는데 어찌 학생이라고 공부를 할 수 있겠나?”
- ⑥ 조문을 하기 위해 검정 통치마를 잘라 까만 댕기와 조표를 만들어 조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 ⑦ 79 소녀결사대를 조직한다.
- ⑧ 2월 28일 밤, 같은 방 친구들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속옷에 주소, 이름, 학교, 고향, 부모 이름까지 써서 붙인다.
- ⑨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다.
- ⑩ 진고개에서 일본 헌병 기마대에 붙들려 정무총감부로 끌려간다.
- ⑪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 ⑫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을 염원하며 기림²⁰⁾ 손수건을 만든다.
- ⑬ 진명여학교에서 보석금을 내주어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난다.
- ⑭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장을 거부하고 낙향한다.
- ⑮ 79 소녀결사대 주동자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 재수감된다.
- ⑯ 독립운동으로 인한 투옥으로 어릴 적 꿈꾸던 수도자의 꿈을 접는다.
- ⑰ 전주 해성학교 예술제에서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노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 ⑱ 해방이 임박하자 벽장을 열어 고이 간직하던 박영효가 손수 그려 선물한 태극기와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 ‘조선어학회 월보’를 꺼낸다.
- ⑲ 해방이 되어 모두가 기뻐하였지만, 이웃 청년에게 빌려준 태극기를 돌려받지 못해 안타까워한다.
- ⑳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응하지 않고 비밀선거를 하였으며,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학생들을 독려한다.

20) ‘기념’을 뜻하는 고어

독립운동가로서의 최정숙 선생의 서사 중에서 여성 선각자이며 독립운동가로서의 강한 면모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1919년 3월 5일 일본인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19년 3월 5일 진행된 첫 번째 「최정숙 신문조서」에는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상황과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 : 그날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답 : 그날은 다리가 아파 오후 3시경까지는 쉬고 있었다.

문 : 그날 오후 3시에 그대가 있는 기숙사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들어온 일이 있는가.

답 : 기숙사로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그 근처에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소요하고 있는 것을 기숙사 창밖으로 보았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 그 군중 속에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종로 거리에서 군중을 따라 대한문까지 갔었고, 다시 종로 거리로 되돌아와서 창덕궁으로 갔다가 광화문 쪽으로 가서 다시 서대문 쪽으로 갔으며, 경성우편국 쪽으로 가서 본정통으로 나왔다가 마침내 우리들은 체포되었던 것이다.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군중 속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군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모두가 “만세만세”라고 외치라고 하기에 나도 만세를 연달아 불렀다. 위의 군중들은 모두가 경성 안에 있는 학생들뿐인 것 같았다.²¹⁾

3월 5일 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당일 선생의 만세운동 루트가 학교 기숙사에서 시작, 군중에 가담하여 종로 거리, 대한문, 다시 종로로 되돌아와 창덕궁과 광화문을 거쳐, 서대문과 경성우체국을 지나 본정통에 이르러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인간으로서 군중 속에 뛰어 들어 “만세”를 외쳤으며, 이는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일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6월 26일의 「최정숙 신문조서」에는 왜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독립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21)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3.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1994)

문 : 왜 독립만세를 부르고 다녔는가.

답 : 독립운동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찬성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다녔던 것이다.

문 : 독립운동에 왜 찬성했는가.

답 : 누구라도 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싫은 것으로 누구나 자유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한 것이다.²²⁾

최정숙 선생은 왜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독립운동에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독립운동이란 것을 알았기에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그것에 찬성했음을 밝히고 있고 누구라도 타인의 압박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누구든지 자유를 원하고, 선생 또한 조선이 자유의 나라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립을 원했다는 강직한 뜻을 당찬 어조로 밝히고 있다.

2) 『괴뢰 : 1901·2632』의 서사

보이틸라는 그의 책에서 모든 이야기들은 공통된 극적 요소 또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화나 동화, 꿈 그리고 영화에는 모두 이 공통적인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여정은 12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였다(Voytilla, 1999: 26).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괴뢰 : 1901·2632』에서는 인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사를 중심으로 극적 요소와 장면들을 추출하여 시간 순으로 구성하여 <표 7> 과 같이 제시하였다.

22)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6.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1994)

〈표 7〉 『괴뢰 : 1901·2632』의 시대별 서사

서사여정	내용(사건)	시기
출생	친일파 아버지 최원순의 딸로 태어남.	신축교란
교육	신성여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음 고성보, 고원봉, 홍두표 선생은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망국의 설움을 일깨워 주곤 함.	한일병합 신성여학교
민족의식의 표현	한국인 학생을 바르게 가르친 일본인 미찌코 선생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자 학교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수업 거부를 주동.	3.1운동 전 진명여학교
고난	수업 거부를 주동하여 퇴학의 위기를 맞음.	
민족의식을 심화하는 계기	일본에 불모로 잡혀간 영친왕과의 만남 ‘우리의 왕세자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야지. 불모로 잡히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지.’	
민족의식을 심화하는 계기	고종황제의 승하. ‘나라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는 게 아깝지 않다.’ “우리 모두 대한문으로 나가자. 온 백성이 슬퍼하고 있는데 목석처럼 구경만 할 수는 없어.” 검정통치마를 잘라 까만 댕기와 나비 조표를 만들어 전교생에게 달게 함.	3.1운동 전 경성여고보 사범과
민족의식에 눈 뜬	일본 교사들의 조선인 차별 교육.	
민족의식의 표현	일본인 교사들에게 항거하고 싶어 일본인을 희화한 만화나 그림을 그려 학교 벽에 붙임. 79 소녀결사대 조직함. 2월 28일 밤, 같은 방 친구들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속옷에 주소, 이름, 학교, 고향, 부모이름까지 써서 붙임.	

서사여정	내용(사건)	시기
민족의식의 실천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 “독립운동에 왜 찬성하는가?” “누구라도 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싫은 것이다. 누구나 자유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것이다.”	3.1운동
고난	서대문형무소 수감. 고문으로 복막협착에 걸려 평생 고생함.	수감
민족의식의 실천	일본 국가를 부르며 졸업장을 받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장을 거부한 채 친구 강평국과 함께 낙향함.	3.1운동 후
	고향 제주에 내려가서 사범학교 졸업생으로 민족교육에 투신.	1920년대 제주
	해성학교 예술제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 등을 가르침.	1938년 전주
고난	전주 해성학교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됨. 학생들을 선동해 불순한 노래를 지도했다는 죄목이었고, 이에 내 나라에서 내 나라말로 내 나라 학생에게 노래를 가르친 것이 무슨 죄냐고 매섭게 맞섬.	1938년 전주 해성학교
	해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구명 활동으로 교편을 놓는다는 조건 하에 풀려남.	
삶의 투영	교장선생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감시 대상이던 선생은 투표장에 함께 가도록 지명 받은 이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투표하러 감.	1960년 제주

서사여정	내용(사건)	시기
삶의 투영	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해 학생들을 독려함.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전국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비겁하게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줄 압니까. 공산당에게 맞서 싸워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1960년 제주
상훈	1993년 독립만세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음.	별세 이후
	2006년 3월 제주보훈지청은 광복회 제주도지부와 공동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로 선정함.	
	2011년 제주시 충혼묘지에 이장됨.	

〈표 7〉 『기림 : 1901·2632』의 시대별 서사를 보면 정숙은 명월만호로 왜적을 물리치던 할아버지의 손녀이자 일제 강점기 고위직을 겸한 친일파 아버지의 큰 딸로 태어났다. 신성여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으며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선생님들을 만나 민족적 대의라는 민족의식이 투영되며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의 출발 선상에 선다.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간 정숙은 민족적 어려움을 몸으로 부대끼며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고종의 비 업상궁이 세운 진명여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영친왕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왕세자가 나라 잃은 실움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야지, 볼모로 잡히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지.’라고 다짐한다. 진명여학교에서 참교육자인 일본인 미찌코 선생은 “우리 일본이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사람보다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용기를 북돋워주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대주었는데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미찌코 선생을 다른

학교로 전근 보내려고 하자 정숙은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도울 방법을 찾자고 제의한다. 정숙을 비롯한 학생들은 뜻을 전하기 위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를 장악한 일본인 교감은 주동자를 가려내어 엄상궁의 사촌동생인 엄준원 교장에게 정숙의 퇴학처분을 요청한다. 엄교장은 한국인 학생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한 달간 반성문 쓰는 정도로 마무리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정숙은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깊이 체험하고, 애국심을 불태우며 항일 운동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이현주, 2015: 30-34참조).

이후 경성관립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들의 차별 대우에 항거하고 싶어 일본인을 희화한 만화나 그림을 그려 학교 벽에 붙이는 등 민족적 자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고종의 승하로 나라 잃은 실움에 빠져 덕수궁의 대한문으로 조문을 다니던 정숙은 '79 소녀결사대'를 조직하고, 2월 28일 밤, 같은 방 친구들과 독립운동 중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자신들의 시체를 찾지 못해 오열할 부모들을 염려하여 속옷에 주소, 이름, 학교, 고향, 부모 이름까지 새겨 넣는다. 다음 날 각기병으로 누워있던 정숙은 만세운동이 시작되자 학교 기숙사에서 나가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다. 만세운동을 참가한 정숙은 학교 기숙사에서 출발하여 군중에 가담하였으며, 함께 가담한 학생들과 종로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고종이 잠들어 있던 대한문을 거쳐 다시 종로로 되돌아온 후,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창덕궁과 광화문, 서대문과 경성우체국을 지나 본정통²³⁾에 이르렀을 때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정숙은 일본인 경찰에게 체포되어 투옥된 후 사범학교 졸업식 참가라는 명목으로 풀려나지만, 일본 국가를 부르며 사범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며 귀향한다. 정숙은 며칠 후 79 소녀결사대 주동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재수감된다. 정숙은 일본인 검사의 신문에도 당당하게 조선의 독립을 찬성하며 독립을 바랐던 마음을 표하고 투옥되었으며, 진명여학교의 보석금을 통해 풀려난 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는다.

제주로 다시 내려온 정숙은 옥중에 생긴 병을 치료하면서 제주의 문맹퇴치를 위해 여수원, 명신학교 등을 설립하며 교육 사업에 몰두한다. 하지만 병이 재발

23) 일제강점기 당시 서울시 중구 충무로에 붙여진 길 이름. 해방 이후 충무공 이순신의 시호를 따 충무로로 개칭되었다.

하여 서울의 큰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명신학교는 일제의 부당한 간섭으로 제주공립보통학교에 흡수 통합된다.

국가보안법이란 죄명으로 수감된 이후 공립학교 교원으로 부임할 수 없었던 정숙은 가톨릭 계열의 사립학교인 목포 소화학교를 거쳐 전주 해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해성학교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한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등을 가르치고, 부르게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학생들을 선동해 불순한 노래를 지도했다는 것이 정숙의 죄명이었으며 내 나라에서 내 나라말로 조선의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것이 죄가 될 수 있냐며 일본인 경찰에 맞섰다. 정숙은 해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구명 활동 덕분에 교편을 놓는다는 조건으로 풀려난 후 제주로 귀향한다.

시간이 흘러 폐교된 모교 신성여학교를 재개교시키는 등 교육 일선에서 큰 업적을 이룬 정숙은 1960년 3월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비밀투표를 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부정선거에 숨죽이던 여학생들에게 항거하라며 학생들을 독려하는 등 과거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드러낸다.

정숙은 민족 교육과 무료 진료 등의 사회봉사활동에 평생을 투신한 공로로 로마교황훈장, 5·16민족상(교육부문) 등을 수상하였다. 별세 후 1993년 독립만세운동으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포장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제주보훈지청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2011년에는 천주교 묘역인 황사평에서 제주시 충혼묘지로 이장되어 독립운동가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IV.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1. 독립운동가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면서 선생이 살아온 시대사적 흐름을 통한 삶의 궤적을 살펴보니 선생 삶의 매 순간이 대한민국의 역사였으며, 제주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재수의 난으로 불리는 신축교안 무렵에 태어나 신성여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일병합이라는 민족의 불운을 맞이하였고, 서울 유학 시절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생애 35년간을 일본의 침략 하에 ‘부정선인’²⁴⁾으로 낙인찍혀 늘 감시의 대상이었다. 해방 이후 제주에 불어 닥친 4·3 사건은 이념의 논쟁으로 선생의 삶을 휘몰아쳤다. 가톨릭 교인이자 나라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 선생은 늘 빼앗긴 자, 억누름을 당하는 자였다.

본고는 최정숙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모색을 위해 최정숙 선생의 삶을 기록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일대기적 서사를 가려내고, 그 중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서사를 시대 순으로 간추려 보았다. 최정숙 선생의 삶의 모든 순간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개발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다면 후대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작업의 토대가 될 시놉시스를 제시하면서 콘텐츠 개발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포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19년 3월 1일 전후가 될 것이다. 최정숙 선생은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8개월여 수감되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던 선생이었지만, 식민지배라는 고국이 처한 현실에 가슴 아파했기에 목이 터져라 독립

24) 당시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의해 감시받던 사람을 일컫는 말

만세를 불렀으며, 남대문으로 향하다 구속 수감되어 가석방된 이후인 1919년 11월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선생은 “조선이 독립할 수 있게 되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동포로서 기쁘게 생각하여 군중 속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나는 장래 조선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보다 하고 만세를 연달아 불렀다.”, “근처에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소요하고 있는 것을 기숙사 창밖으로 보았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 그 군중 속에 가담하였다.”²⁵⁾ 등 의연한 모습으로 일본인 검사와의 신문에 응했다. 선생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의연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준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은 이야기의 측면에서 태생적으로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 선생은 할아버지는 명월만호의 벼슬을 하며 제주를 침략하는 왜(일본)의 수군들을 무찌르는 선봉장이었으나, 아버지 최원순은 일제 치하에서 고위관료로 지낸 인물로 친일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올라 있다. 제주도에서 신뢰받고 일 잘하던 인물이었다고는 하지만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요구를 등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편에선 아버지에게서 자란 선생이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 숨은 내력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최정숙 선생이 자신과 관련하여 남긴 기록은 없다. 다만, 그 내력을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 살펴보면 신성여학교의 민족교육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신성여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던 수녀님은 조선을 ‘아국’으로, 일본은 ‘내지’로 바꿔 가르쳤다. 선생님은 비록 나라는 일본에 병합됐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말과 역사를 알아야 한다면서 독립의식을 불어 넣어 주곤 했다(박재형, 2009: 102)”. 최정숙 선생은 신성여학교에서 이곤자가 수녀와 김아나타시아 수녀 및 여러 선생님들이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망국의 설움을 일깨워 준 교육을 받으며 조국을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최정숙 선생의 아버지 최원순은 친일 관료로서 일제강점기 초고속 승진과 많은 훈장을 받았다. 1912년 8월 한국 병합 기념장 수여받았을 뿐 아니라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

25)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3.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1994)

레 기념장 등을 수여받았다. 일본의 기념장은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표창의 일종으로 국가적 행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훈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기장이며, 이중 한국병합기념장(韓國併合記念章)은 1912년 3월 29일에 칙령에 의하여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일에 수여되었는데 대상은 한국 병합 사업에 직접 및 수반한 중요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병합 당시 조선에서 근무하던 관리 한국 정부의 관리,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는 자 등 일본에서 인정한 한일병합에 공훈이 있는 자에게 수여된 것이다. 1913년 1월에는 고등관 6등으로 승급되었으며, 1918년 12월에는 고등관 5등으로 승급되었다. 1937년 10월에는 사상범의 보호관찰을 맡는 광주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로 임명되었는데, 촉탁보호사의 임무는 사상범이 출옥 후에 다시 항일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상적 과오를 청산하고 황도정신을 자각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도록 전향시키는 일이었다. 1941년 9월에는 전시 체제하에서 조선인들의 전쟁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를 통합해 조선임전보국단을 조직할 때 전라남도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친일행적을 보였다(민족문제연구소, 2009: 749-750참조).

식민 지배 시절, 승승장구하며 고위직을 도맡으며, 항일 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의 사상적 과오를 청산케 했던 아버지에게서 이토록 의연한 독립운동가가 나왔다는 것이야말로 흥미로운 서사가 아닐 수 없다. 어린 소녀였던 선생은 일본의 무자비한 고문과 회유를 견뎌내며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길었던 고난의 시간을 잘 참고 견뎌낸다. 물론, 고통의 후유증인 복막협착은 평생토록 선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멍에가 된다. 선생의 삶을 기록한 평전에서도 아버지 최원순과의 대립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다 옥에 갇힌 큰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 최원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투옥으로 건강을 해친 상태로 돌아온 제주에서 선생과 선생의 아버지는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마주보았을까?

선생은 유순한 성격이었지만 일본인에게는 멸시에 찬 시선을 보내며 강단있는 모습과 절박한 마음으로 독립을 향해 의지를 불태웠다. 기록으로 남겨진 바는 없지만 아버지와 딸은 묘한 대립을 이루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가족이라는 피로 맺은 끈을 수 없는 끈이 있었기에, 서로를 향한 애뜻한 정이 있었기에 표면 상으로는 큰 갈등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군난을 받는 자는 진복자니라.”²⁶⁾ 최정숙 선생의 삶을 기록한 평전에서 승승장구하던 친일파 아버지 최원순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인품과 역량, 존경받는 지역 유지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일제강점기 시절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아버지 최원순도 부양가족을 거느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딸 최정숙은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도 민족의식을 키우며, 자신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삶의 방향을 정했다.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최정숙, 그런 딸의 안부를 걱정하며 식민 지배가 끝날 무렵 고향 제주로 내려오라고 당부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국가와 가족이라는 보편적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제시할 것이다.

2. 다큐멘터리 『괴림 : 1901 · 2632』

- 부제 : 제주 소녀, 서울 한복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1) 시놉시스

“하얀 광목에다 ‘태극’과 ‘괴림’이란 글자를 색실로 수를 놓고 그 바탕에 의(義)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의기(義氣)라는 글을 써놓고 매일 그 글을 들여다보며 고통을 참았다(박재형, 2009: 136).” 1901호실 독방에서 수감번호 2632번을 달고 자신의 의기와 조선 독립의 뜻을 기념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의 삶은 선생이 남긴 「괴림 손수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수건에 한 수, 한 수 놓은 ‘괴림’이라는 단어와 1901 · 2632라는 숫자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독립의 뜻을 놓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의 삶에서 ‘괴림 손수건’과 ‘신문조서’, 서대문형무소 독방에서 수를 놓았다는 ‘녹죽열녀정(綠竹烈女情) 창송군자절(蒼松君子節) 자수’, 전주 해성학교 시절 민족혼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민족의 노래 ‘따뜻한 봄바람’과 ‘조국의 산하’ 등은 큰 의미를 지닌다. 최정숙의 다큐멘터리 영화

26) 서대문 형무소 수감 당시 최정숙 선생이 「괴림」 손수건에 쓴 글

제목을 『괴림 : 1901·2632』로 정한 이유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기념하고자 8개월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녹여낸 한 장의 손수건에서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서사를 정리하여 작성한 시놉시스는 <표 8> 과 같다.

<표 8> 다큐멘터리 『괴림 : 1901·2632』의 시놉시스

-부제 : 제주 소녀, 서울 한복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No	시기/장소	서사	주제
1	신축교관 / 제주	명월만호의 손자이자 친일파 아버지 최원순과 명문가 자제 박효원의 딸로 태어남.	출생
2	한일병합 / 제주 신성여학교	신성여학교에서 민족 교육을 받음. 고성보, 고원봉, 홍두표 선생은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망국의 설움을 일깨워 주곤 함.	민족교육
		아버지 최원순은 한일합병을 기념하여 한일병합 기념장을 수여받음.	
3	3·1운동 전 / 서울유학 진명여학교	아버지 최원순은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수여받음.	민족의식 심화
		볼모로 잡혀간 영친왕과의 만남 '우리의 왕세자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야지, 볼모로 잡히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지.' 결심.	
4		한국인 학생을 바르게 가르친 일본인 미찌코 선생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자 학교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수업 거부를 주동.	민족의식 표현
5		수업거부를 주동하여 일본인 교감에게 미움을 받아 퇴학의 위기를 맞음	위기

No	시기/장소	서사	주제	
6	3·1운동 전 / 서울유학 경성관립여자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재학	일본 교사들의 조선인 차별 교육.	민족의식 심화	
7		일본인 교사들에게 항거하고 싶어 일본인을 회화한 만화나 그림을 그려 학교 벽에 붙임.	민족의식 실현	
8		고종황제의 승하 나라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 “우리 모두 대한문으로 나가자. 온 백성이 슬퍼하고 있는데 목석처럼 구경만 할 수는 없어.” 김정통치마를 잘라 까만 댕기와 나비 조표를 만들어 전교생에게 달게 함.	민족의식 실천	
9		최은희, 강평국 등과 도모하며 79 소녀결사대를 조직함.	민족의식 표현	
10		2월 28일 밤, 같은 방 친구들과 독립운동 중 죽을 것을 각오하고 속옷에 주소, 이름, 학교, 고향, 부모이름까지 써서 붙임.	민족의식 표현	
11		1919. 3. 1 / 서울 서울 한복판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 학교 기숙사 - 종로거리 - 대한문 - 종로거리 - 창덕궁 - 광화문 - 서대문 - 경성우체국 - 본정통	민족의식 실천
12		서대문형무소 수감 형무소 투옥과 고문으로 복막협착이라는 지병을 앓게 됨.	고난	
13		1919년 3월 / 서울 서대문형무소	-일본인 검사와의 신문- “독립운동에 왜 찬성하는가?” “누구라도 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싫은 것이다. 누구나 자유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것이다.”	독립염원 표출

No	시기/장소	서사	주제
14	1919년 3월 임시 방면 / 제주	일본 국가를 부르며 졸업장을 받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장을 거부한 채 친구 강평국과 함께 낙향함.	민족의식 표현
15	1919년 / 서울 서대문형무소 재수감	‘의를 위하여 군난을 밟는 자는 진복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1919.3.1-10.6 1901. 2632 1919년 최정숙	옥중 고난 ‘괴림 손수건’ 의기 표출
16		녹죽열녀정(綠竹烈女情) 창송군자절(蒼松君子節)	
17	1919년 가을 / 제주	고향 제주에 내려가서 사범학교 졸업생으로 민족 교육에 투신. 아버지 최원순은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수여받음.	민족의식 표현
18		해성학교 예술제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 등을 가르침.	민족의식 고취
19	1938년 / 전주 해성학교 교사	전주 해성학교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됨. 학생들을 선동해 불순한 노래를 지도했다는 죄목이었고, 이에 내 나라에서 내 나라말로 내 나라 학생에게 노래를 가르친 것이 무슨 죄냐고 매섭게 맞섬.	민족의식 표현
20		해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구명 활동으로 교편을 놓는다는 조건으로 풀려남. 아버지 최원순은 사상범이 출옥 후에 다시 항일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상적 과오를 청산하고 황도정신을 자각하게 만드는 촉탁보호사로 임명됨.	위기에서 벗어남

No	시기/장소	서사	주제
21		교장선생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감시 대상이던 선생은 투표장에 함께 가도록 지명 받은 이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투표하러 감.	의기 표출
22	제주 1960년 3월 부정선거 / 제주 신성여학교 교장	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해 학생들을 독려함.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전국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비겁하게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줄 압니까. 공산당에게 맞서 싸워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자로서 민족의식 표현
23		1993년 독립만세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음.	독립유공 표창
24	별세이후	2006년 3월 제주보훈지청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함.	이달의 독립운동가
25		2011년, 제주시 황사평 천주교 묘역에서 제주시 노형동 구구곡 충혼묘지로 이장.	충혼묘지 안장

2) 트리트먼트

앞서 제시한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한 트리트먼트를 구성한다. 본 다큐멘터리는 독립운동가로서 최정숙의 삶을 대변하는 장소와 당시 사진을 제시하여 삶을 고증하고, 선생의 회고담과 역사 기록물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내레이션 형식으로 담고자 한다. 시놉시스와 마찬가지로 최정숙 선생의 삶 중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의기가 표출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에피소드와 플롯을 구성한다. 작고한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생전 화면자료를 찾을 수 없어 과거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경우 샌드아트(Sand Art)로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이야기 전달은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시각과 청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시대사적 상황 전달이 필요할 경우 사진과 역할극이라는 기법을 통해 화면을 제시하며, 생존하는 관련인 인터뷰 등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한다.

〈표 9〉 다큐멘터리 『괴림 : 1901·2632』의 트리트먼트

-부제 : 제주 소녀, 서울 한복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S	구분	내용	화면	구성
#1	2016년 대한민국	한국에서 못살겠다며 고국을 등지는 20-30대 청년들. 이민 의향 조사에서 80%가 넘는 비율을 보이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 그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신문기사, 인터뷰 화면	청년 인터뷰 내레이션
#2	프로로그	2016년 가을, 제주시 노형동 구구곡 충혼묘지 비석 앞에 놓인 때 묻은 하얀 조화 ‘우리는 독립 유공자들을 어떻게 기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국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구구곡 충혼묘지 자막	내레이션 배경음악
#3	질문	괴림, 기념(記念), 2016년 8월... ‘당신은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자막	배경음악

#S	구분	내용	화면	구성
#4	괴림	1919년 봄, 서대문형무소에서 자신의 수감번호와 감방 호실을 기념하고자 손수건에 수를 놓은 여인, 제주 출신 최정숙. 그녀의 무엇이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기념하게 만들었을까?	괴림 손수건 서대문형무소	내레이션
#5	타이틀 # 『괴림 : 1901 · 2632』 “제주소녀, 서울 한복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6	탄생	신축교란(이재수의 난)에 태어남. 아버지 최원순과 어머니 박효원	신축교란 자료화면	내레이션
#7	대비	어지러운 세상에서 왜군을 무찌르던 할아버지와 일제강점기에 승승장구하던 아버지를 둔 제주 소녀.	사진자료	배경음악
#8	질문	무엇이 그토록 강렬한 정신을 투영하여 고난의 삶으로 이끌었는가?	자막	배경음악
#9	1부. 제주 소녀,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10	교육	신성여학교에서 민족 교육을 받음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망국의 설움을 일깨움.	제주 향사당 신성학원 터	내레이션
#11		아버지 최원순은 한일병합 기념장을 수여받음.		
#12	고난	‘의를 위하여 군난을 맞는 자는 진복자니라’	서대문형무소	내레이션
#13	신념	최정숙의 신념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 상하는 일에 염려하지 않는 투철한 신념.	괴림 손수건	내레이션

#S	구분	내용	화면	구성
#14	계기	진명여학교에서 영친왕과의 만남 '우리의 왕세자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야지, 볼모로 잡히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지'	영친왕 사진	내레이션
#15		아버지 최원순은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수여받음.		
#16	위기	진명여학교 일본인 선생이 학교에서 쫓겨나자 학교에 항의, 수업거부 주동.	진명여학교	샌드아트
#17		수업거부를 주동하여 일본인 교감에게 미움을 받아 퇴학 위기.		
#18	차별	일본 교사들의 조선인 차별 교육. '조센징'이라 놀리며 "개와 조센징은 맞아야 정신 차려"라며 폭언과 매질을 서슴치 않음.	자막	재구성 샌드아트
#19	자의식	차별하는 일본인 교사들에게 항거하기 위해 일본인을 희화한 만화나 그림을 그려 학교 벽에 붙임.	벽보재현	
#20	자의식	고종황제의 승하 '나라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는 게 아깝지 않다'	대한문 고종 사진	내레이션
#21	표출	검정 땀과 나비 조표. 교복의 검정치마를 잘라서 하나씩 만들었을 소녀들.	검정 땀, 나비 조표, 검정 치마	재구성
#22	표지/눈물	소녀의 눈물. 슬픔을 표현하는 기호. 교복으로 입던 치마를 잘라내어 슬픔을 표현하던 소녀들.	검정 땀, 나비 조표, 검정 치마	샌드아트
#23	결의	박희도 선생과 최은희, 강평국 등 '79 소녀결사대'를 조직.	자료화면	내레이션

#S	구분	내용	화면	구성
#24	필사즉생	2월 28일 밤. 숙곳에 주소, 이름, 학교, 고향, 부모이름까지 써서 붙이며 죽음을 각오. 필생즉사, 필사즉생.	기숙사 작은 방	재현 샌드아트
#25	2부. 제주 소녀, 독립만세를 외치다.			
#26	3 · 1운동 독립만세의 길	3 · 1독립만세운동에 참가. 학교 기숙사 - 종로거리 - 대한문 - 종로거리 - 창덕궁 - 광화문 - 서대문 - 경성우체국 - 본정통	기숙사-탑골 공원-본정통	도보여정 2017년 3월1일
#27	체포	본정통에서 일본인 경찰에 체포.	중부경찰서	배경음악
#28	의지	일본인 검사와의 신문. “누구라도 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싫은 것이다. 누구나 자유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것이다.”	최정숙 신문조서	자료화면 흑백사진
#29	지병	형무소 투옥과 고문으로 복막협착이라는 지병을 앓게 됨.	서대문형무소	형무소 촬영/ 내레이션
#30	입시 방면	“난 졸업장을 받지 않을래. 졸업식장에서 일본의 국가를 부르며 졸업장을 받는 일보다 치욕적인 것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민족의식의 표현	목소리 재현
#31	낙향/ 제주행	사범과 졸업장을 거부한 채 친구 강평국과 함께 낙향함. 정신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포기.	제주 산지향	내레이션
#32	괴롭하다/ 기념하다	‘의를 위하여 군난을 맞는 자는 진복자니라’	옥중 손수건	자료화면 유품사진
#33		녹죽열녀정(綠竹烈女情) 창송군자절(蒼松君子節)	옥중 자수	

#S	구분	내용	화면	구성
#34	형무소의 독방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 우리 절대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지 말자”	최은희와 최정숙의 대화	목소리 재현
#35	질문	고난의 순간, 당신은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자막	배경음악
#36	3부. 삶에 투영된 민족정신			
#37	투영	고향 제주에 내려가서 사범학교 졸업생으로 민족 교육에 투신.	제주 향사당	내레이션
#38	투영	해성학교 예술제. 민족의식을 고취한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 등을 열정적으로 가르침.	전주해성학교 현 전주 성심여학교	노래가사 자막 배경음악 샌드아트
#39	고난	학생들을 선동해 민족의 독립을 노래하는 등 불순한 노래를 지도했다는 죄목으로 일본인 경찰에게 체포.	샌드아트	재구성
#40	의연	‘내 나라에서 내 나라말로 내 나라 학생에게 노래를 가르친 것이 무슨 죄냐며 매섭게 맞섬’	목소리 재현 자막	내레이션
#41	시련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구명 활동으로 교직을 놓는다는 조건으로 풀려나 현실의 벽에 부딪힘.	목소리 재현 자막	내레이션
#42	대비	아버지 최원순은 광주보호관찰소 축탁보호사로 임명.	자막	배경음악
#43	1960년 3월 강인한 의지	부정 선거에 동요하지 않고 의연하고 결의 있게 혼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함.	목소리 재현	내레이션 인터뷰

#S	구분	내용	화면	구성
#44	1960년 3월 신성여학교	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해 학생 독려.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전국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비겁하게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줄 압니까. 공산당에게 맞서 싸워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주 신성여학교	내레이션 자막
#45	4부. 독립운동가, 잠들다			
#46	표창	1993년 독립만세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음.	유공자 증서	사진 현장촬영 내레이션
#47	선정	2006년 3월 제주보훈지청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신문자료	사진 현장촬영 내레이션
#48	이장	2011년, 제주시 황사평 천주교 묘역에서 제주시 노형동 구구곡 충혼묘지로 이장.	황사평 묘지, 충혼묘지	
#49	행사	2015년, 2016년 최정숙 관련 사업 학술 세미나, 유품 전시회, 문화 축제 등 관련 행사 사진.	사진자료 영상	내레이션
#50	에필로그	“독립운동에 왜 찬성하는가?” “누구라도 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싫은 것이다. 누구나 자유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것이다”		배경음악
#51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참혹했던 시절, 일본인 검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최정숙 선생.		자막

#S	구분	내용	화면	구성
#52	2016년 대한민국	취업을 위해, 개인의 미래를 위해 국가를 저버리는 시대. 이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국가, 그리고 국적	관련 뉴스, 신문기사	배경음악
#53	질문	‘누군가는 생을 걸고 지켜낸 조국. 당신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100여년 전, 서울 한복판에서 선생이 흘린 피와 땀의 열매는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막	배경음악
#54	엔딩	최정숙 선생 연보 최정숙 사진		

V. 결론

본고는 최정숙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사구조를 도출하여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를 구성하였다. 교육자로서, 가톨릭의 모범이 되는 평신도로 최정숙 선생의 삶은 여러 형태로 조명되어 왔지만 죽음을 각오한 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굳은 의지를 실천한 선생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정숙 선생은 신성여학교 시절 나라를 잃은 민족의 한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식을 키운다. 진명여고 보에서 영친왕과의 만남을 통해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경험하였고, 한국인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며 감싸주던 일본인 교사의 전근 문제로 수업 거부를 주동하여 퇴학 위기에 처한다. 이후 경성관립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서 일본 교사들의 조선인 차별 교육에 맞서 일본인을 회화한 만화나 그림을 그려 학교 벽에 몰래 붙임으로써 울분을 토해냈으며 고종 황제의 승하에 ‘나라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는 게 아깝지 않다’라며 독립을 향한 의지를 표출한다. 조선인 학생들과 함께 검은 통치마를 잘라 까만 댕기와 나비 조표를 만들어 달게 하는 등 조국을 잃은 시절 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후 79 소녀결사대를 조직하여, 3월 1일 만세 운동을 위해 같은 방 친구들과 죽음을 각오하고 속옷에 주소, 이름, 학교, 고향, 부모 이름까지 쓰며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결의를 다진다.

최정숙 선생의 76년 삶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처럼 흥미진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흔한 갈등도,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로맨스도 없다.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수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 군세계 평생을 살았으며, 청춘이라 이름 붙여졌던 시절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에 불타오른다. 그 배움을 다 마치기 전 나라를 잃은 쓰디쓴 마음으로 조국의 해방을 간절히 염원하였고, 조국 해방의 신념으로 3·1독립 만세를 외쳐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최정숙 선생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난 이후 제주의 여성을 위한 교육에 전념한다. 수감 중에 걸린 지병인 복막염착과 친구 강평국의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의술을 공부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이후 선생은 의사가 되어 찾아오는 수많은 이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지만 모든 일에서 물러날 즈음에는 몸 하나 들 곳 없어 신성학교 관사에 머물게 된다. 개업의사로, 학교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선생이지만, 무보수 교장으로 보낸 세월과 가난한 이들에게 차마 진료비를 받을 수 없어 무료 진료를 했던 선생이기에 오히려 자신이 머물 곳을 걱정해야 했던 무소유의 순례자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 분의 삶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데에 소홀했기에 이제는 선생의 얼마 되지 않는 기록에 의지해야만 선생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이 실로 안타깝다. 지금까지 최정숙 선생의 스토리텔링이 부진한 이유는 살아생전 공적인 기록을 제외하고는 본인 스스로가 전부 없애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선생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했던 한계점에서 기인한다. 선생이 하나의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삶의 궤적을 찾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정숙 선생의 삶에서 하나의 궤적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최정숙 선생의 삶은 ‘제주 지역의 근대 여성 선각자로서의 선생’,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제주 소녀’, ‘일제에 의해 폐교된 모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교육자이자 제주 교육을 일으킨 선구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온전히 지켜낸 의료인’, ‘소녀 시절 서원한 약속을 지키며 수도자의 삶,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선생’ 등 삶의 조각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최정숙 선생의 76년의 삶의 조각을 모아보면 평전의 형태를 띤다.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의 커다란 줄기 중 하나인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제주 소녀’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젊은 날의 회상 혹은 에피소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생의 삶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숭고한 선생의 업적과 인류의 보편성을 지닌 서사에 스토리텔링을 덧입히는 과정을 통해 선생이 살았던 20세기의 삶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조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드는 기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에 주목하여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정숙이라는 20세기 인물이 3월 1일을 전후하여 어떤 의식 속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정신은 이후 삶을 통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에 대해 『괴롭 : 1901·2632』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최정숙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사구조를 추출하여 트리트먼트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선생의 트리트먼트는 교육용 다큐멘터리 제작과 향토 인물 교육 자료집 제작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큐영화 제작으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나 이는 후속 작업이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차후 최정숙 선생이 살아낸 다양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며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제작하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최정숙과 함께 신성여학교에서 공부하며 함께 독립운동에도 가담하였으며 의학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나 일본에서 독립의 열정을 지새우다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한 강평국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못다 이룬 그녀의 꿈을 후세에 알리는 작업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각 지역에는 아직도 후세에 의해 기억되지 못하는 잊어서는 안 될 시대적 인물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가 기점이 되어 잊혀져가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과 비교하고 대비해 보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1994), 「최정숙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 김용재·조성애 (2009), 『마지막 사형수』, 서울: 형설라이프.
- 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 3」,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서울: 민연(주).
- 박재형 (2009),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제주: 도서출판 각.
- 박재형·현화진 (2013), 「최정숙 교육감 평전」, 『제주문우』 창간호, (사)제주특별자치도문우회.
- 신성학원총동문회 (2009), 『신성백년사』.
- 윤유석 (2014a), 『역사 이야기 스토리텔링』, 서울: 북코리아.
- 이미애 (2016), 「교육과 의료로 제주를 일으킨 여성 선각자 최정숙」, 『불꽃이 향기가 되어』, 서울: 으뜸사랑.
- 이영운 (2014), 『사랑하는 사람 가지지 마라』, 서울: 선우미디어.
- 이운옥 (2014), 『서간도에 들꽃피다 <4>』, 서울: 알레빗.
- 이현주 (2015),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서울: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 출판부.
- 제주교육박물관 (2015),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展 도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 제주도 (1996), 『제주항일독립운동사』.
- 제주특별자치도 (2005),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제주: 도서출판 각.
- 제주문화원 (1998), 「작은 불씨 한톨로 온누리를 밝힌 생애」, 『제주여인상』.

제주발전연구원 (2009),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한교경 (2013),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서울: 북코리아.

《논문》

윤유석 (2009), 「최용신에 대한 기억의 스토리텔링」, 『최용신탄생10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안산시.

윤유석 (2010a),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역사인물의 대중화: 안산 최용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9호, 인문콘텐츠학회.

윤유석 (2010b), 「역사문화자원의 소통과 스토리텔링 방안: 자서전 『백범일지』의 서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유석 (2014b), 「최용신 문화콘텐츠의 특징과 개발방향」, 『제2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 안산시.

이창식·강석근 (2011), 「신라인물 김대성의 원형과 스토리텔링 창작」, 『新羅文化』 Vol.27 No-[200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하경숙 (2014),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성 인물의 가치와 의미-운초 김부용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濩知論叢』 Vol.41 No-[2014].

한금순 (2015),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44집, 초등정보교육연구, 10-3, 89-108.

2. 국외 문헌

《단행본》

Chatman, Seymour (1990),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서울: 민음사.

Frye, Northrop (2000),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Mckee, Robert (2002),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고영범·이승민 역, 서

울: 황금가지.

O'neill, Patrick, (2004), 『담화의 허구』, 이호 역, 서울: 예림.

Tierno, Michael (2008), 『스토리텔링의 비밀』, 김윤철 역, 서울: 아우라.

Voytilla, Stuart (2005), 『영화와 신화』, 김경식 역, 서울: 을유문화사.

3. 웹사이트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mancukmuseum.or.kr>

최용신 기념관 홈페이지, <http://choiyongsin.iansan.net>

네이버 지식백과, 「재속프란치스코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3590&cid=50762&categoryId=50768>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lueways>

4. 신문기사

제남일보, 「내가 걸어온 길」, 최정숙 증언, 고익조 기자, 1973년 9월 17일-10월 8일.

평화신문, 『빛과 소금-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교육과 의료로 제주를 일으킨 여성 선구자 최정숙」, 이미애 작가, 2015년 4월 26일-6월 28일.

제주대신문, 『광복 70년 in 제주 <2> 최원순』, 「부녀의 서로 다른 길 친일과 아버지와 독립운동가 딸」, 전지민 기자, 2015년 9월 23일.

〈부록〉 최정숙 선생 연보

1902년 2월 10일	제주시 삼도리, 최원순과 박효원의 딸로 태어남
1909년 10월 18일	신성여학교 1회 입학
1914년 3월 15일	신성여학교 1회 졸업
1915년 10월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편입
1917년 3월 22일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1917년 4월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입학
1919년 3월 1일	3 · 1 만세운동 참가, 투옥
1919년 3월 25일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
1919년 11월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1919년 11월	야간강습소 여수원 개원
1920년	남녀공학 명신학교 개교
1925년 4월	제주여자청년회 조직
1925년 4월	목포 소화학원 교사
1925년 8월 11일	신성여학교 설립자 구마슬 신부 선종
1932년 4월	전주사립해성학교 교사
1933년 11월 10일	평생의 동지 강평국 별세
1938년 12월 25일	프란치스코3회 입회(오기선 신부 주례)
1939년 4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입학
1943년 9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
1943년 11월	경성 성모병원 의사, 이화여자고등학교 편입
1944년 3월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2회 졸업
1944년 10월 5일	정화의원 개원
1946년 10월 18일	신성야간여학원으로 신성여자중학교 재개교
1948년 8월 4일	신성여자중학교 설립, 무보수 초대 교장 취임
1949년 9월	선성여자중학교 교장
1953년 11월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가, 초대 교장 취임(중학교 겸임)
1955년 4월	로마 교황 십자훈장 수상

1956년 9월	UN가입 제주도추진위원회 부위원장
1958년 10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부지사장
1960년 6월	제주도교육회 이사
1960년 7월	제주도 중등교육회 회장
1960년 9월	대한교련공제조합 제주 2지부장
1961년 11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제주도본부 지도위원회 부위원장
1962년 3월 31일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장 정년퇴임
1962년 4월	국민운동 제주도지부 도위원회 부의장
1963년 5월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 지부장
1962년 8월	문화포상(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4년 2월 4일	초대 제주도교육감 선출
1967년 5월	5·16민족상(교육부문 본상) 수상
1968년 2월 3일	제주도 교육감 퇴임
1973년 9월~10월	제남일보에 '내가 걸어온 길' 회고글 투고
1977년 2월 22일	별세(천주교 황사평 묘지 안장)

<별세 후>

1993년 3월 1일	애국지사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수여
1998년 11월	『제주여인상』에 「작은 불씨 한톨로 온누리를 밝힌 생애」라는 제목으로 평전 수록(제주문화원, 한림화 저)
2006년 3월	제주보훈지청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2009년 9월 10일	평전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발간(신성학원 100주년 기념, 박재형 저)
2011년	제주시 구구곡 애국지사 묘지(충혼묘지)로 이장
2015년 5월 15일	최정숙 학술 세미나 『시대를 선도한 제주여성』 개최
2015년 8월 13일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전』 제주교육박물관 전시
2015년 10월 4일	평전 『소유없이 순례자처럼 최정숙』 발간(이현주 저)
2016년 3월 27일	평전 『불꽃이 향기가 되어』 발간(이미애 저)
2016년 5월 15일	우리들의 스승 『최정숙 문화 축제』 개최